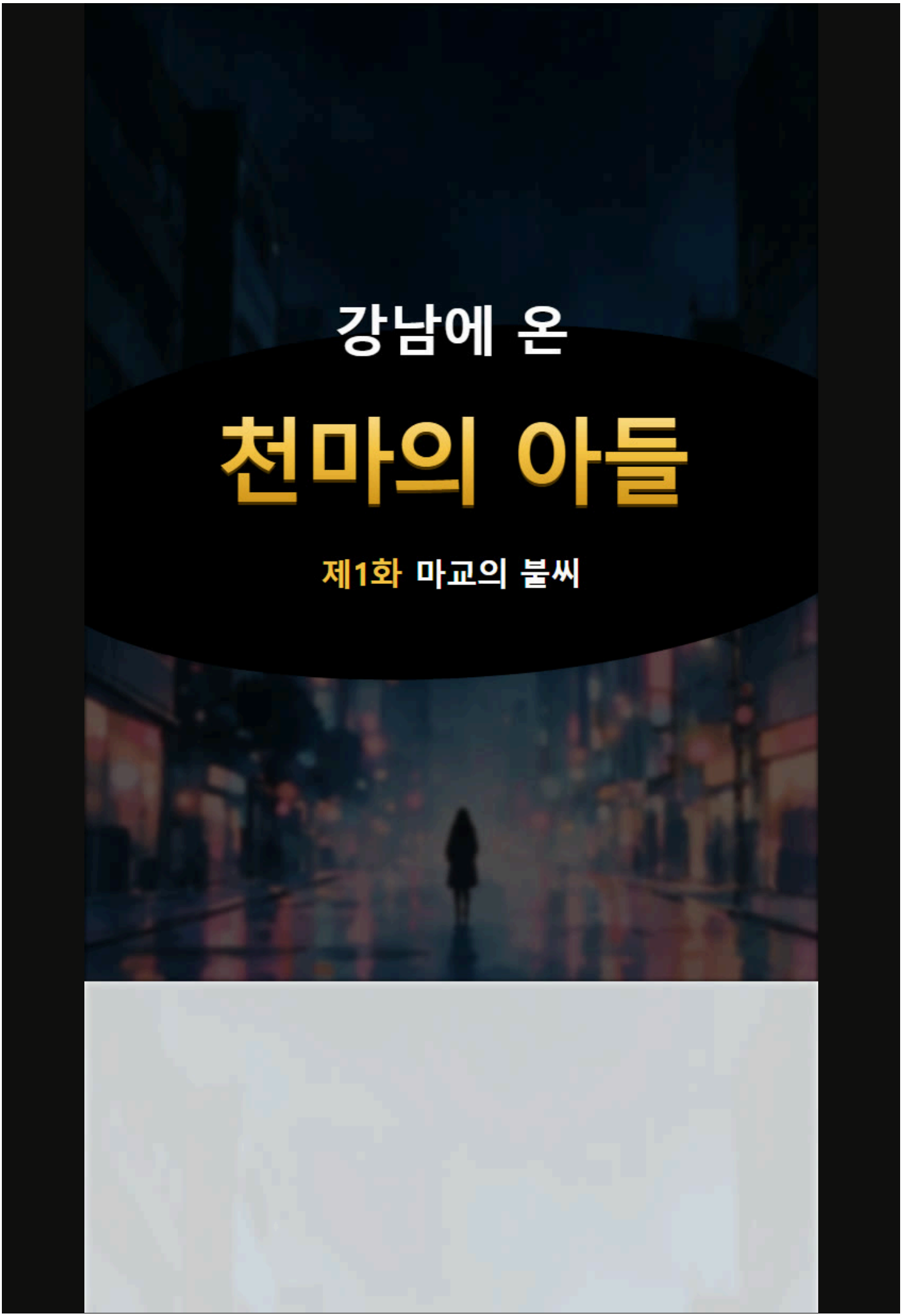
강남에 온 천마의 아들

1화 · 마교의 불씨

이전화 다음화


강남에 온
천마의 아들
제1화 마교의 불씨


글 지안
그림 로드
기획 CLIIP WEBTO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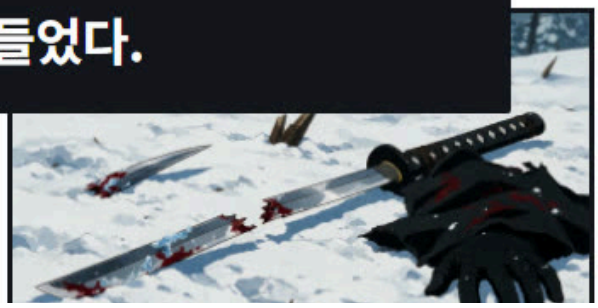


900년 전, 제2차 정마대전.





마교의 기서
《천마총람》이
나타났다는 소문에
정사연합이 먼저 칼을
들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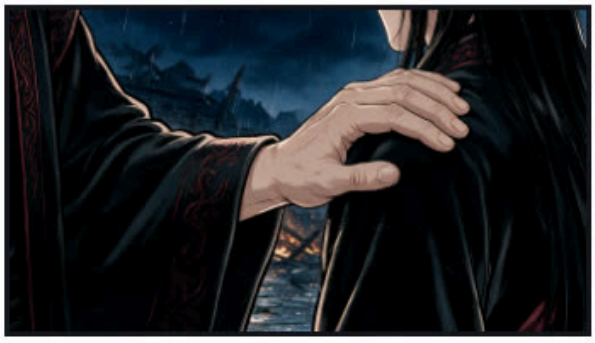


그러나 그들이 찾던
책은 어디에도 없었다.





마교 제17대 교주, 천마 진무극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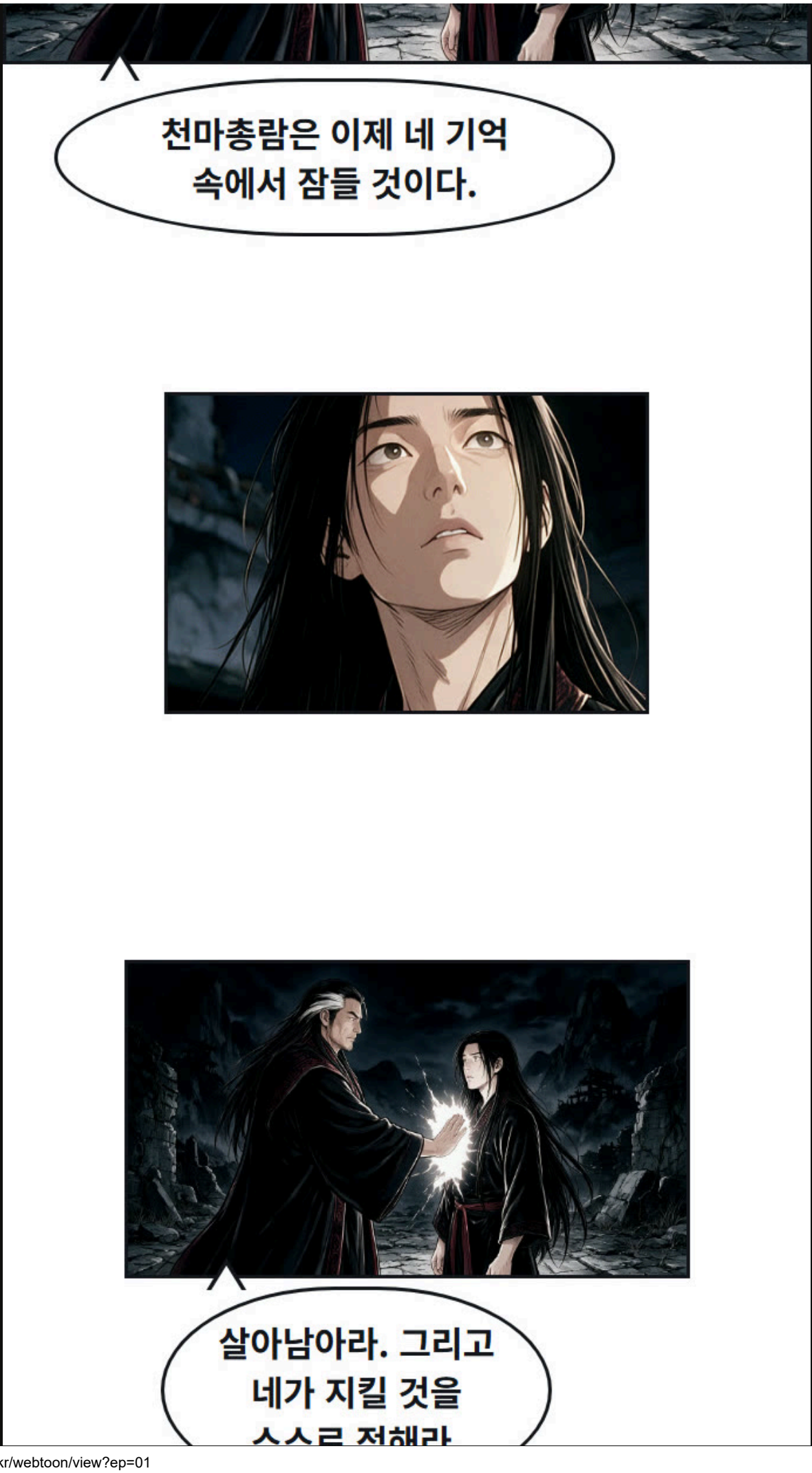

무천아. 저들이
찾는 것은 책이
아니다.



아버지, 함께
나가야 합니다.






천마총람은 이제 네 기억
속에서 잠들 것이다.
살아남아라. 그리고
네가 지킬 것을







쩌억



아버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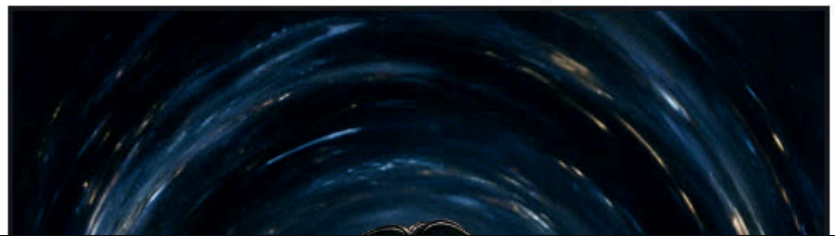






마교의 불씨를
꺼뜨리지 마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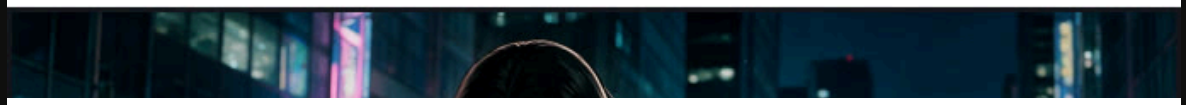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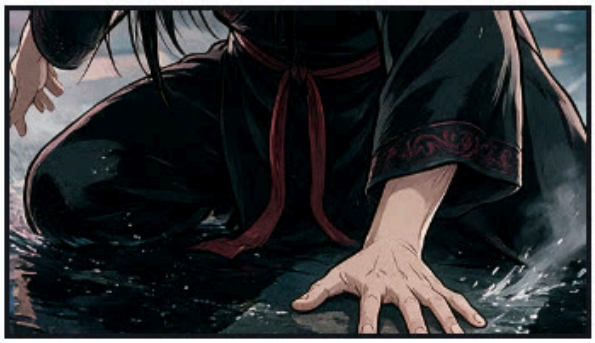


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.





쿠웅















시간도… 흐르는 기운도
다르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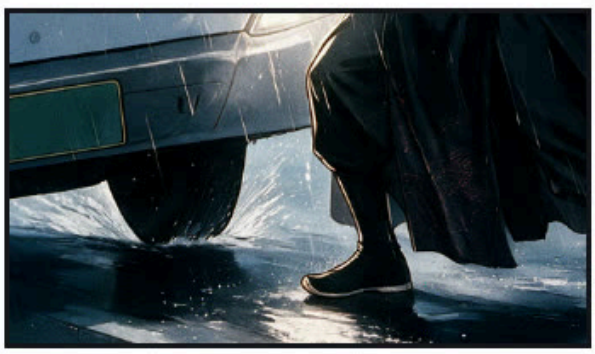
끼이이익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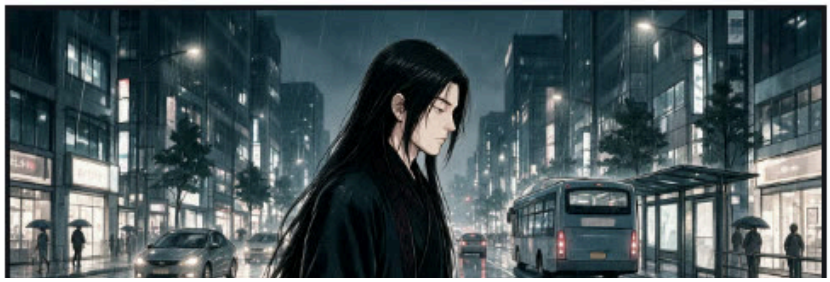
비켜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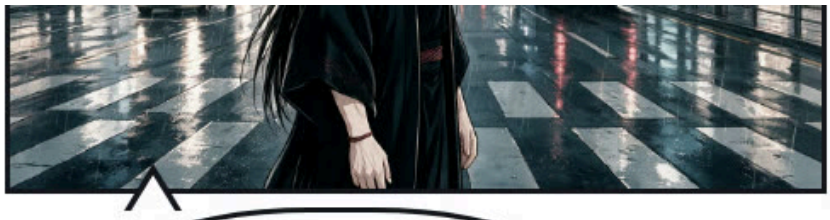



쿠웅!




꺄아악!





쇳덩이가 사람을
삼키고 달리는군.



미친, 버스를 손으로 막았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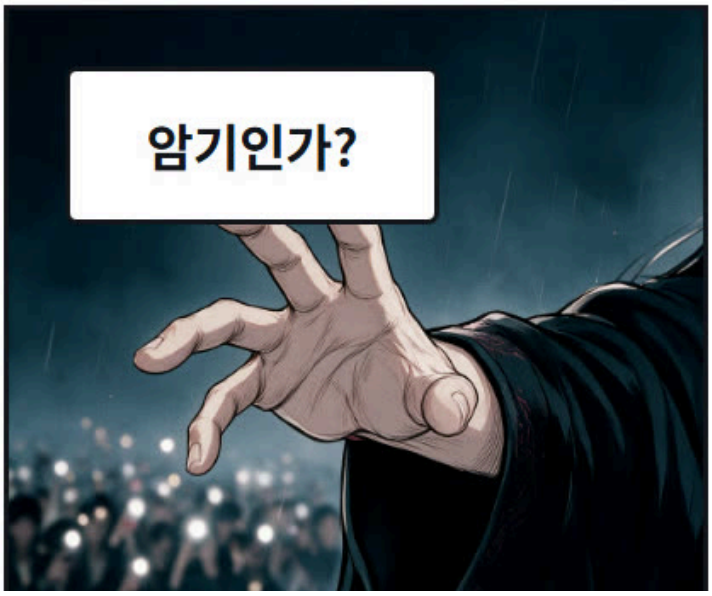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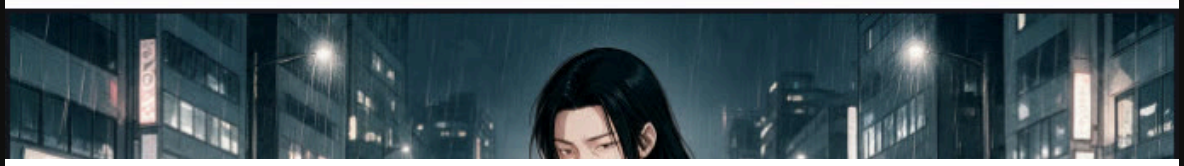



암기인가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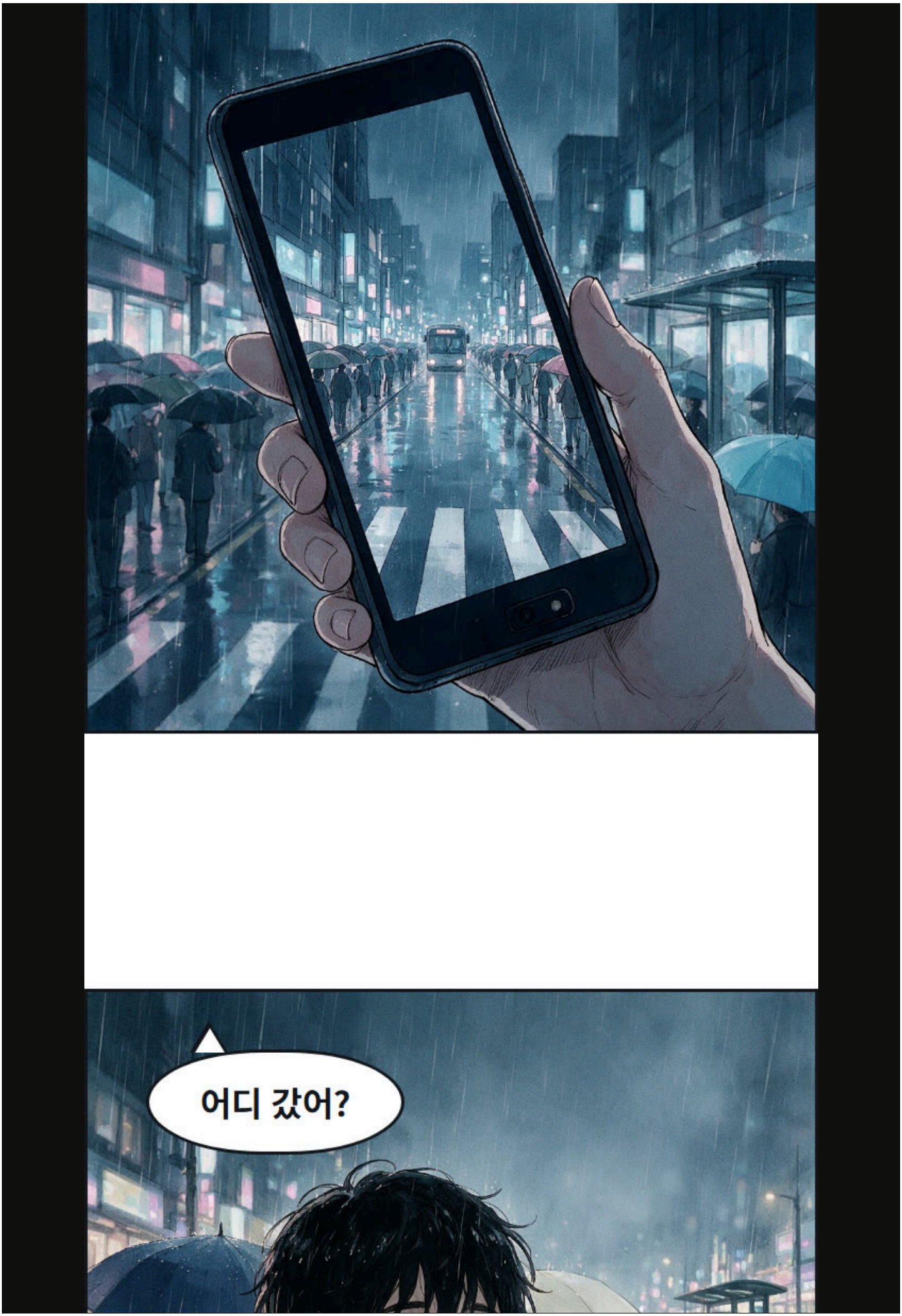

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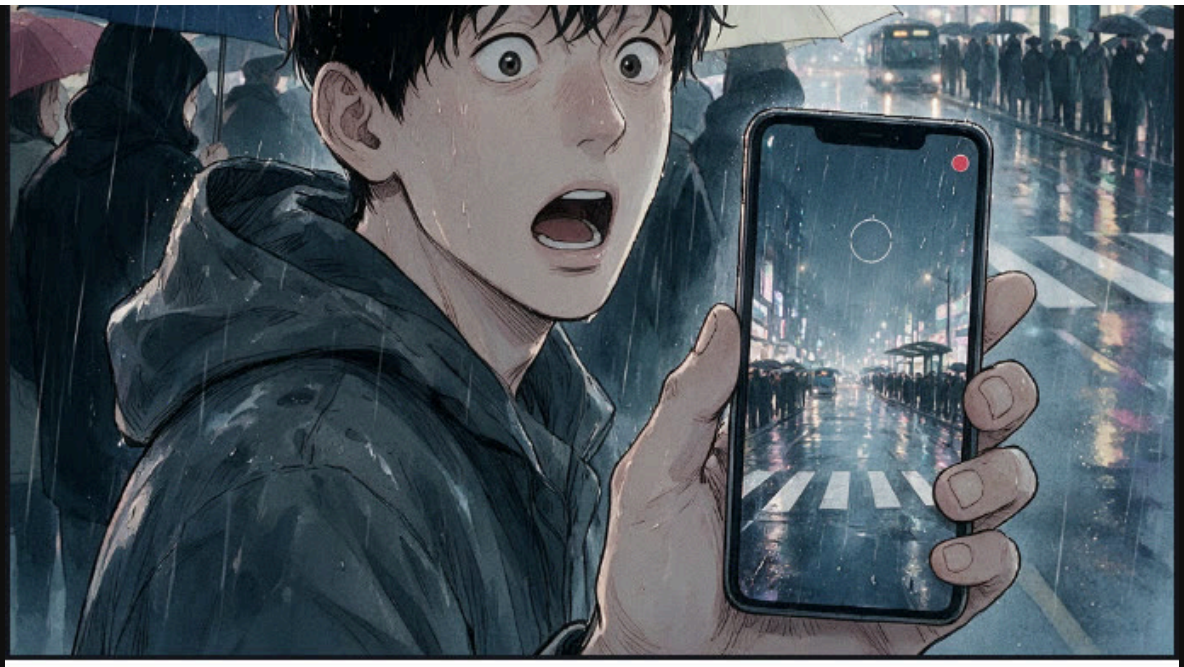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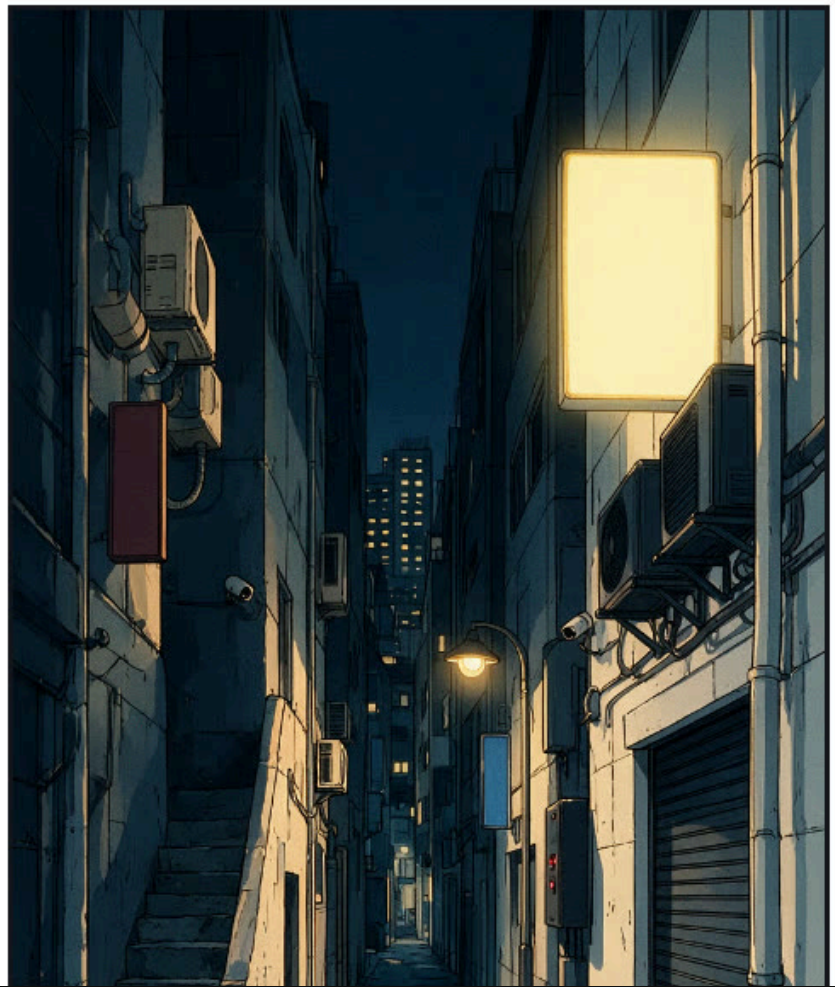



어디 갔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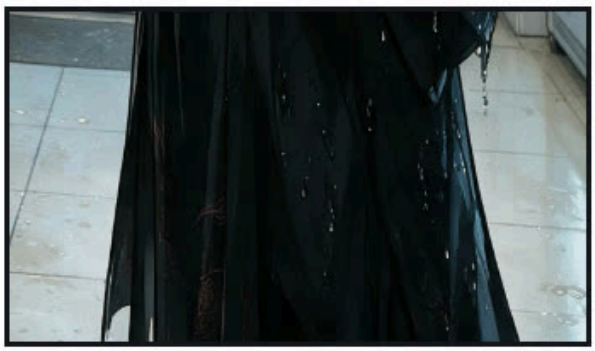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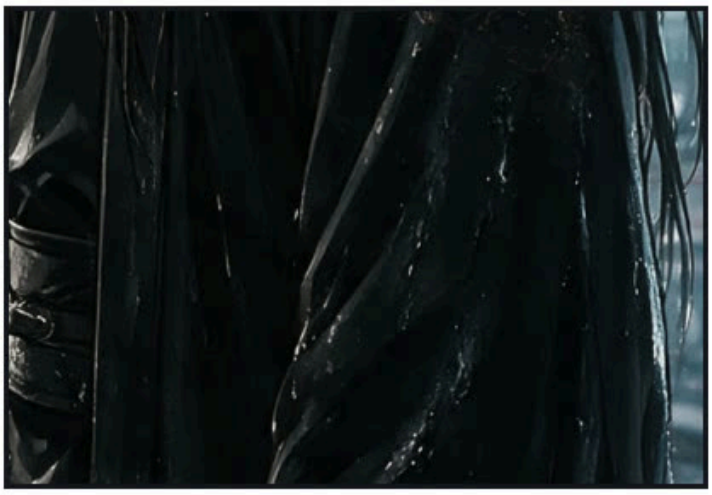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꼬르르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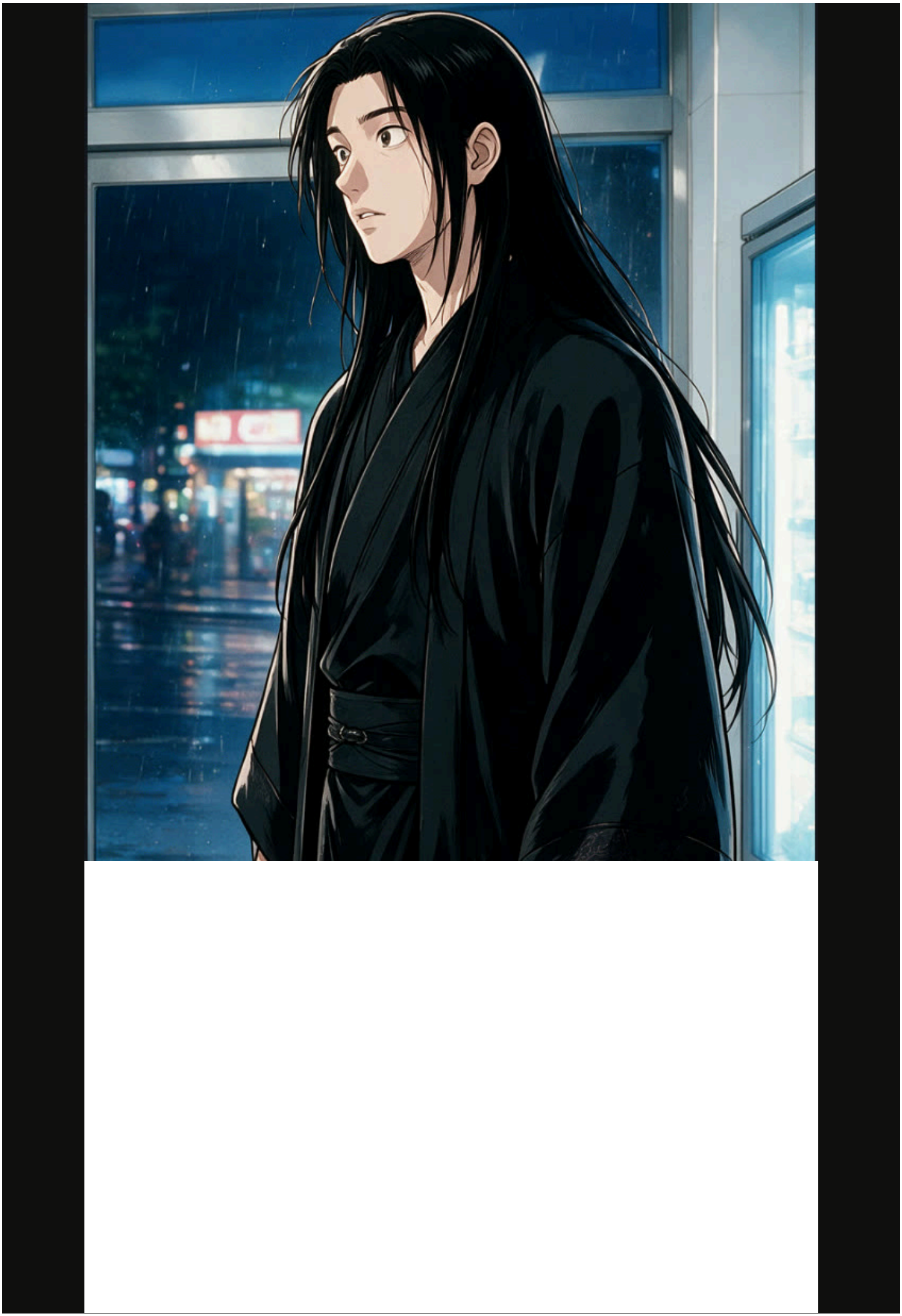
천하의 무공도
배고픔을 없애 주지는
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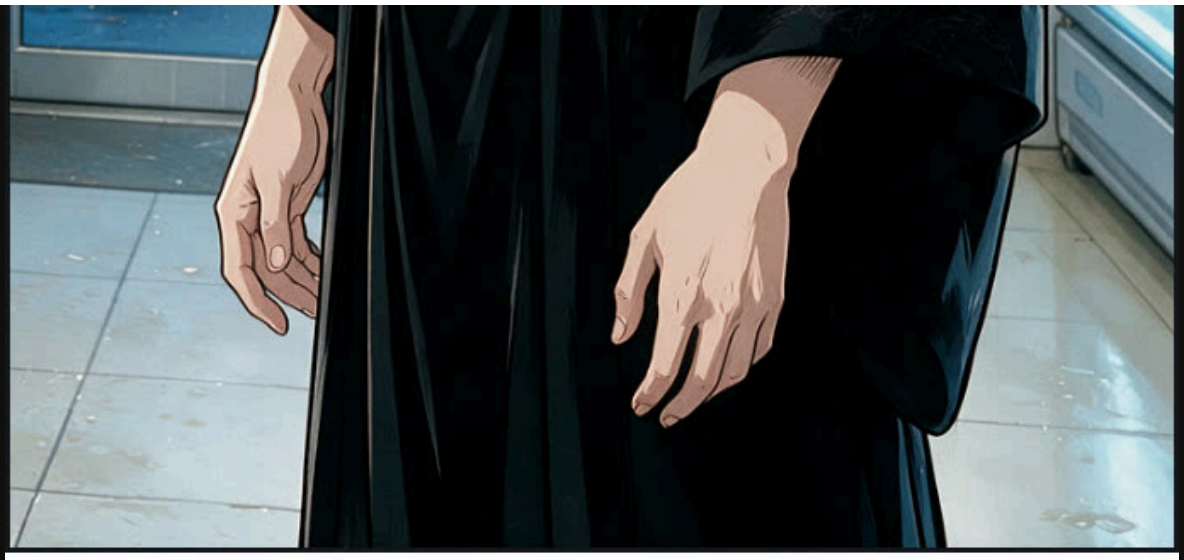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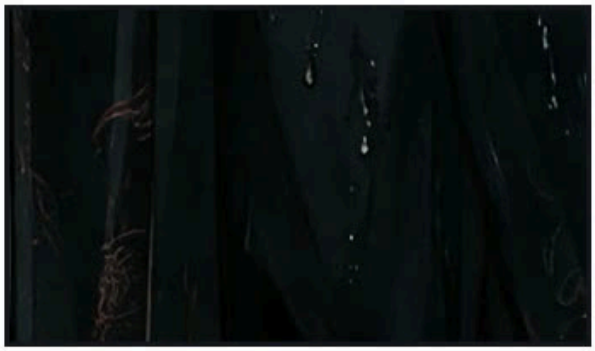





어서 오세요…
괜찮으세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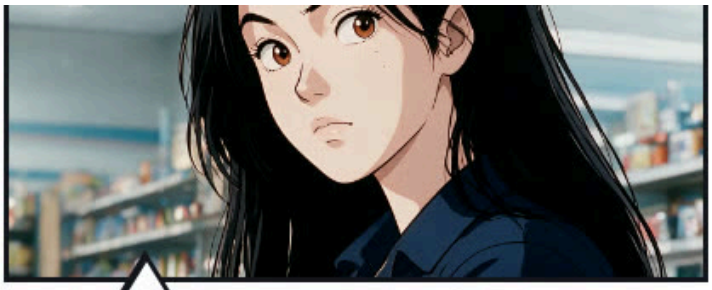




뚝, 뚝




이곳의 주인은
그대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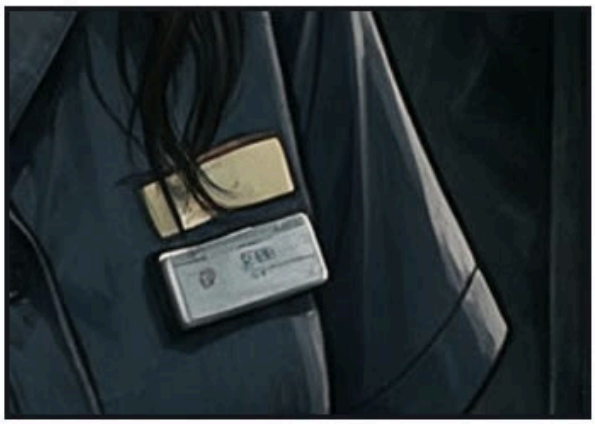


아뇨. 야간
알바인데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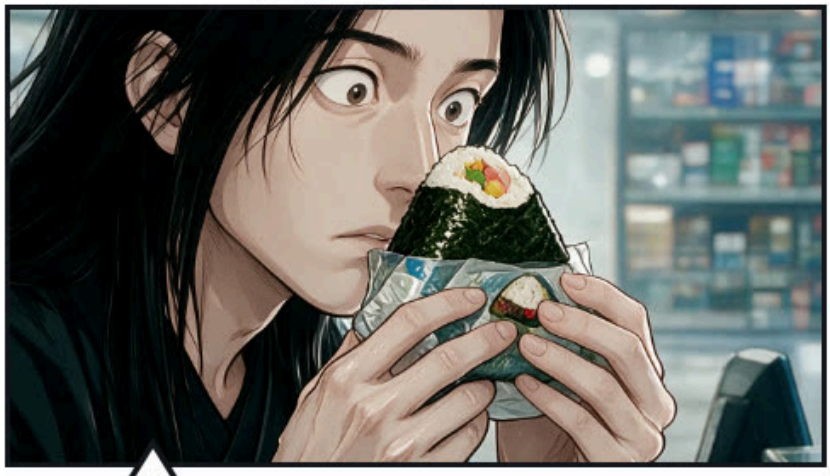
알바… 문파의
직책인가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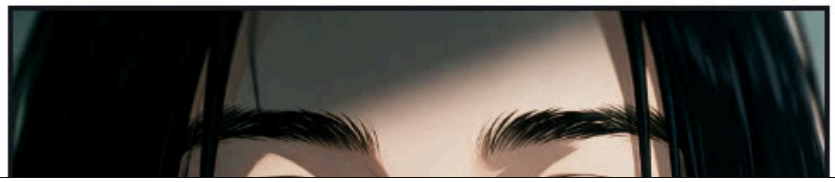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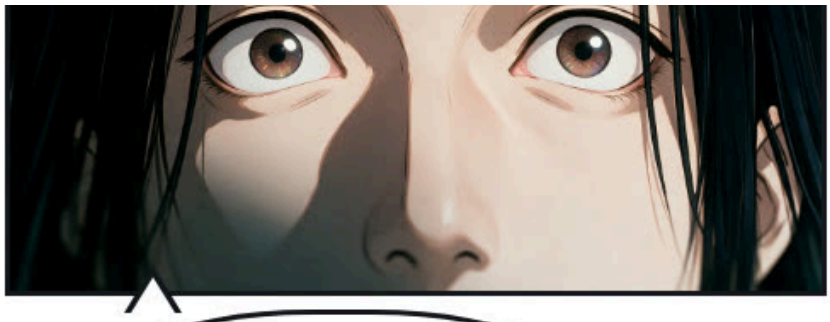
일단 이거 드세요. 폐기 직전이라 돈 안 받아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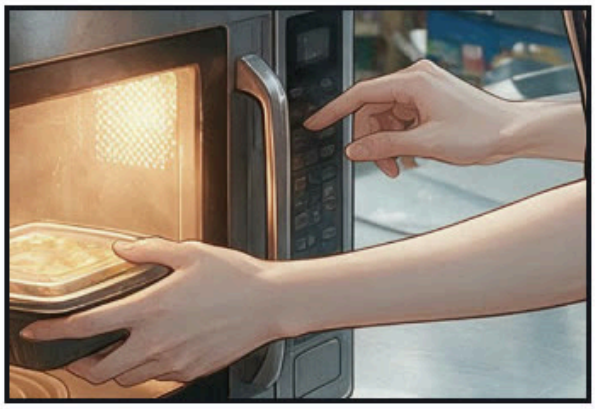
쌀을 봉인한 법기인가?







아무 대가 없이
은혜를 베푼다고?



위이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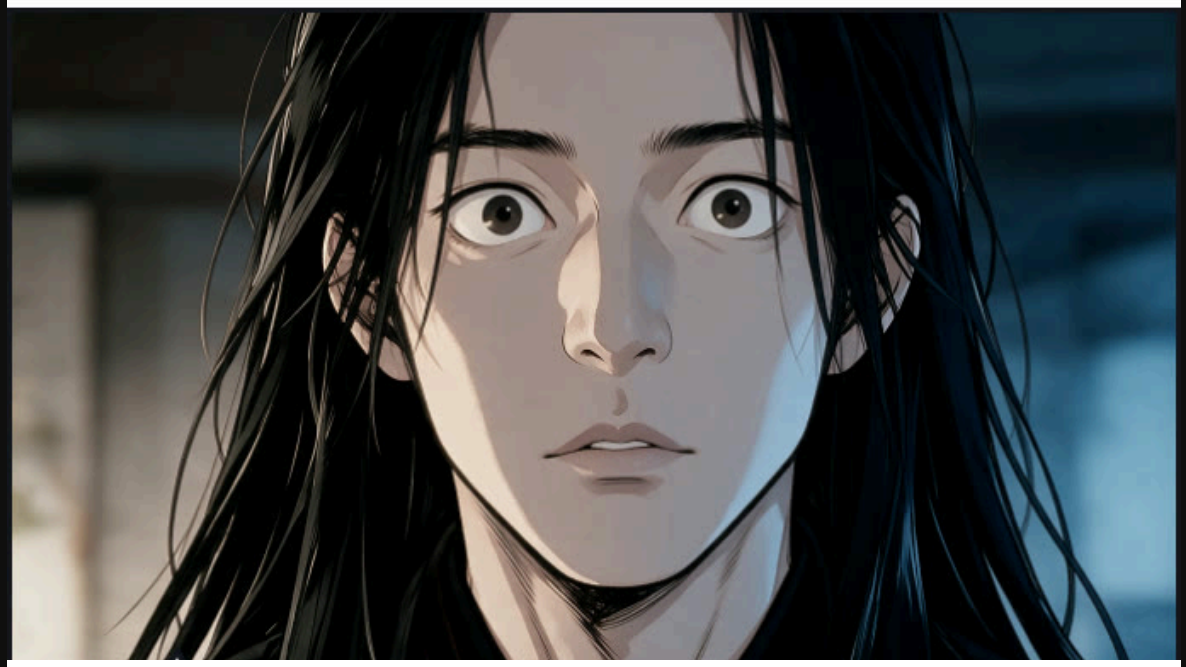


화기가 발생했다



전자레인지예요. 공격 안 해요

해요.



이 시대의 병량은… 훌륭하군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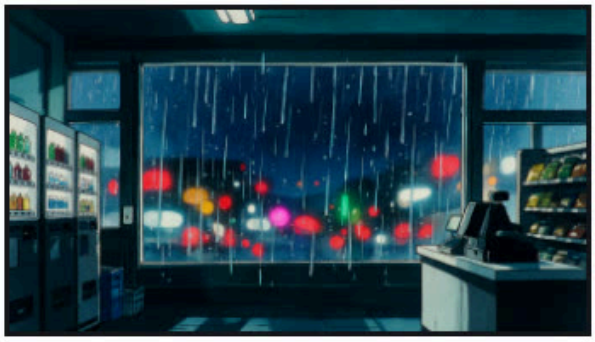
서지안, 어쨌든
신세를 졌군.




제 이름은
어떻게
아셨어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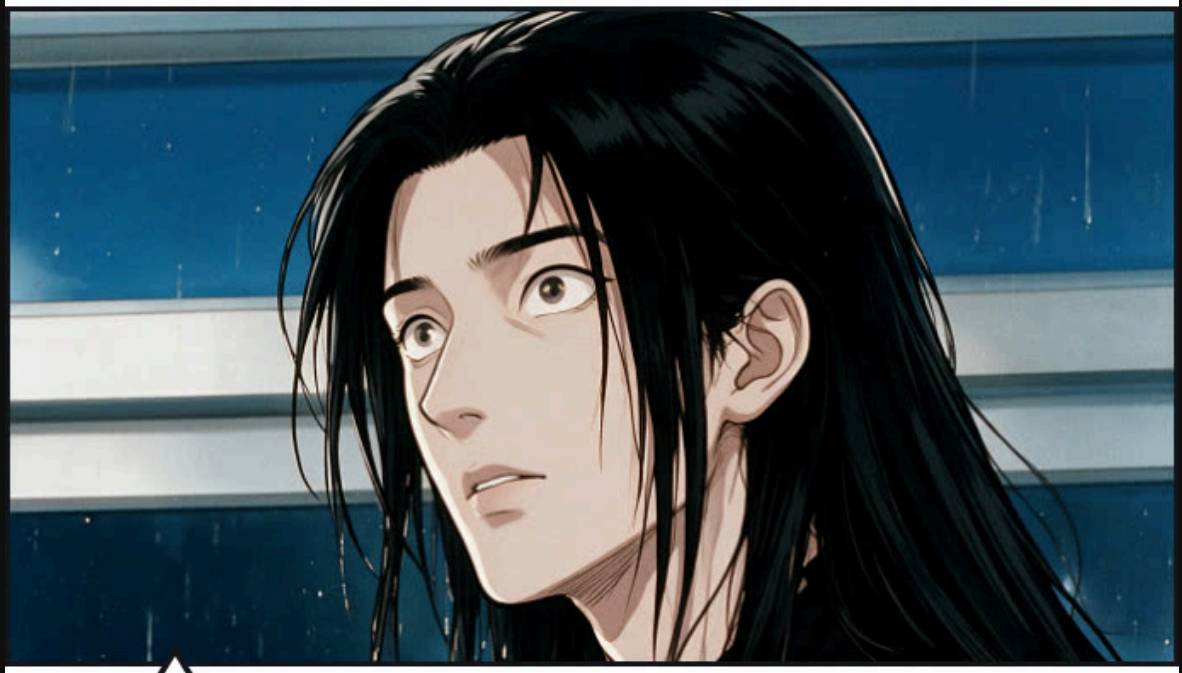


그대의 가슴에
적혀 있지
않은가.





그래서… 갈 데는
있어요?


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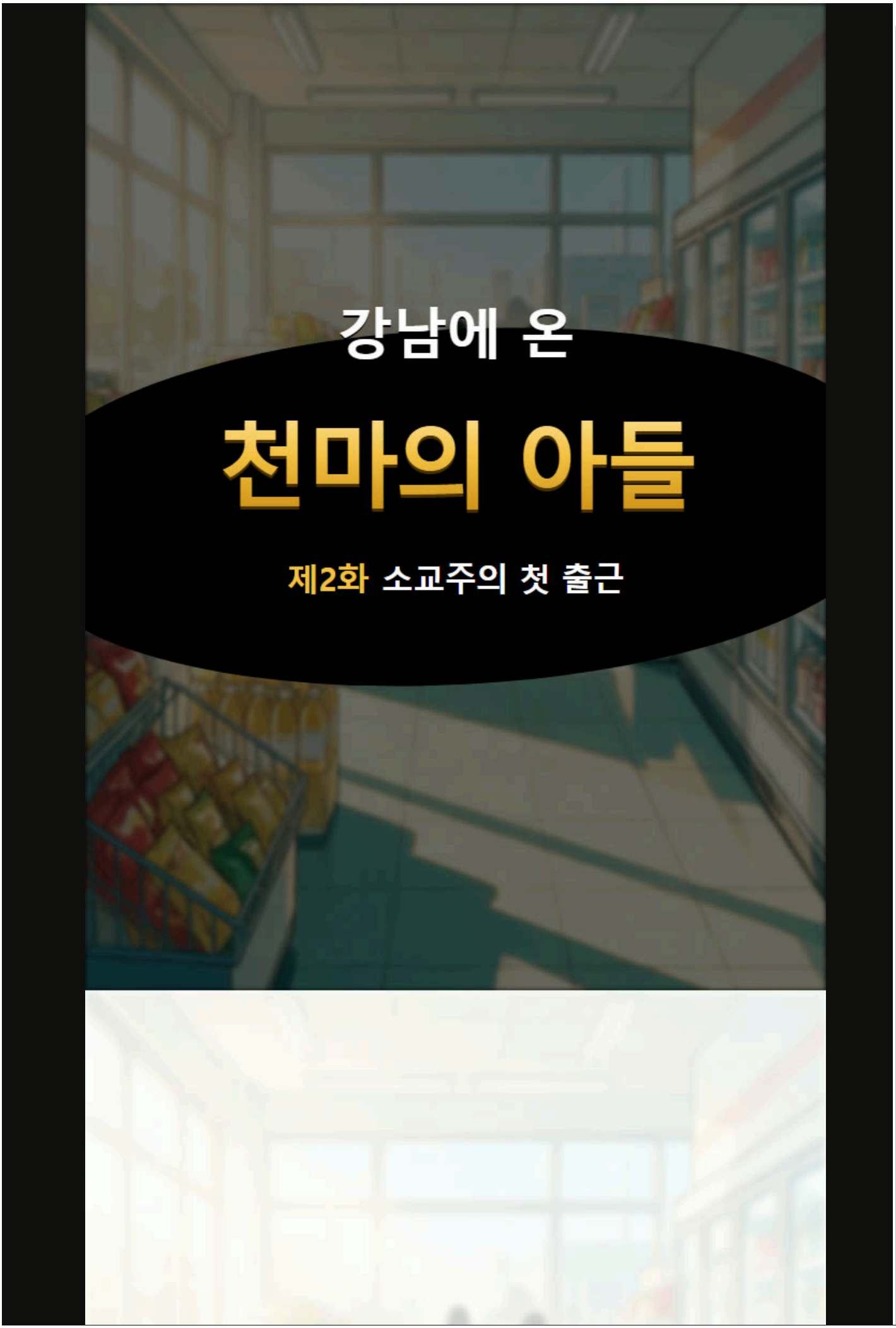
— 다음 화에 계속 —

2화 · 소교주의 첫 출근 →

강남에 온 천마의 아들

2화 · 소교주의 첫 출근

이전화 다음화


강남에 온
천마의 아들
제2화 소교주의 첫 출근


글 지안
그림 로드
기획 CLIIP WEBTO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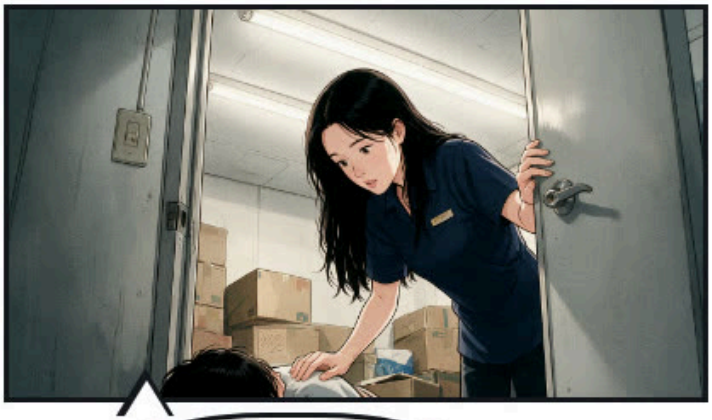




드르륵






어젯밤에 딱
하루라고 했죠.


은혜는 갚겠다.



그러니까 은혜 같은 말 말고, 사고만 치지 마요.





이건 바코드예요.




물건마다 검은
부적이 붙어
있다.







그거 떼면 안 돼요.



카드 여기 대면 돼요.






이 물건이
사람의 재물을
삼키는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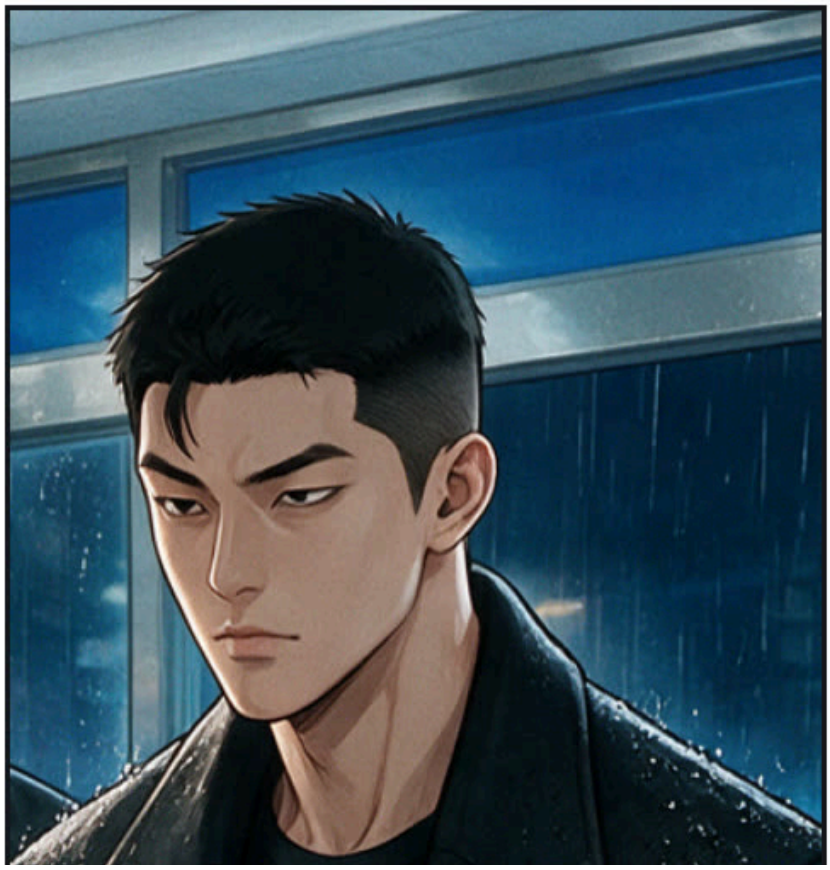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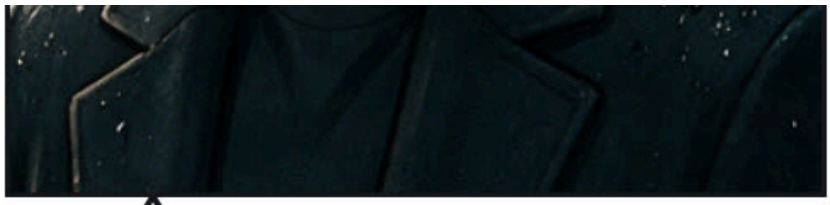







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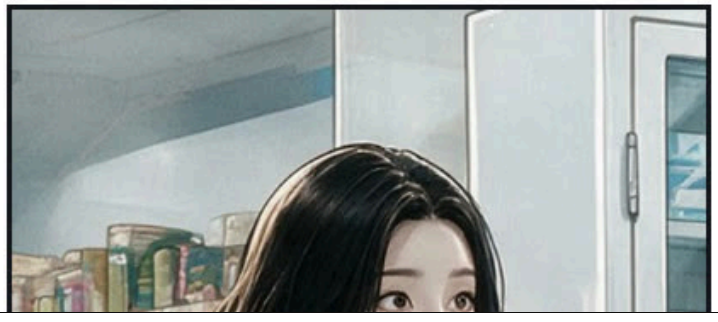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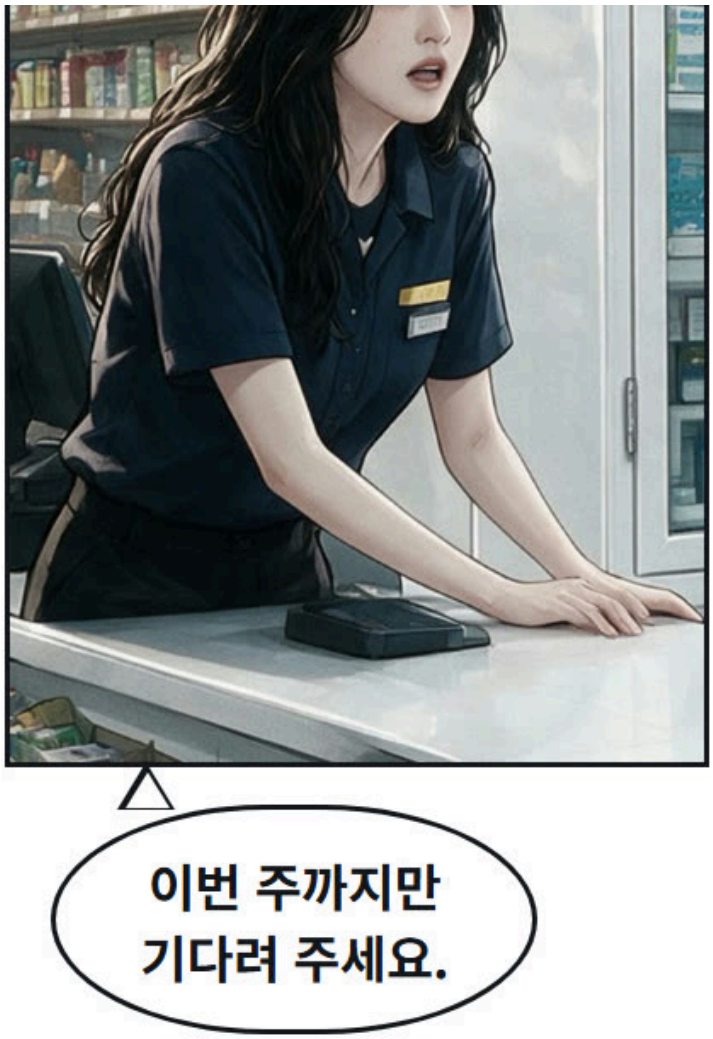


지안아, 약속한 날짜 지났지?



옷 꼬라지 봐. 사극 찍냐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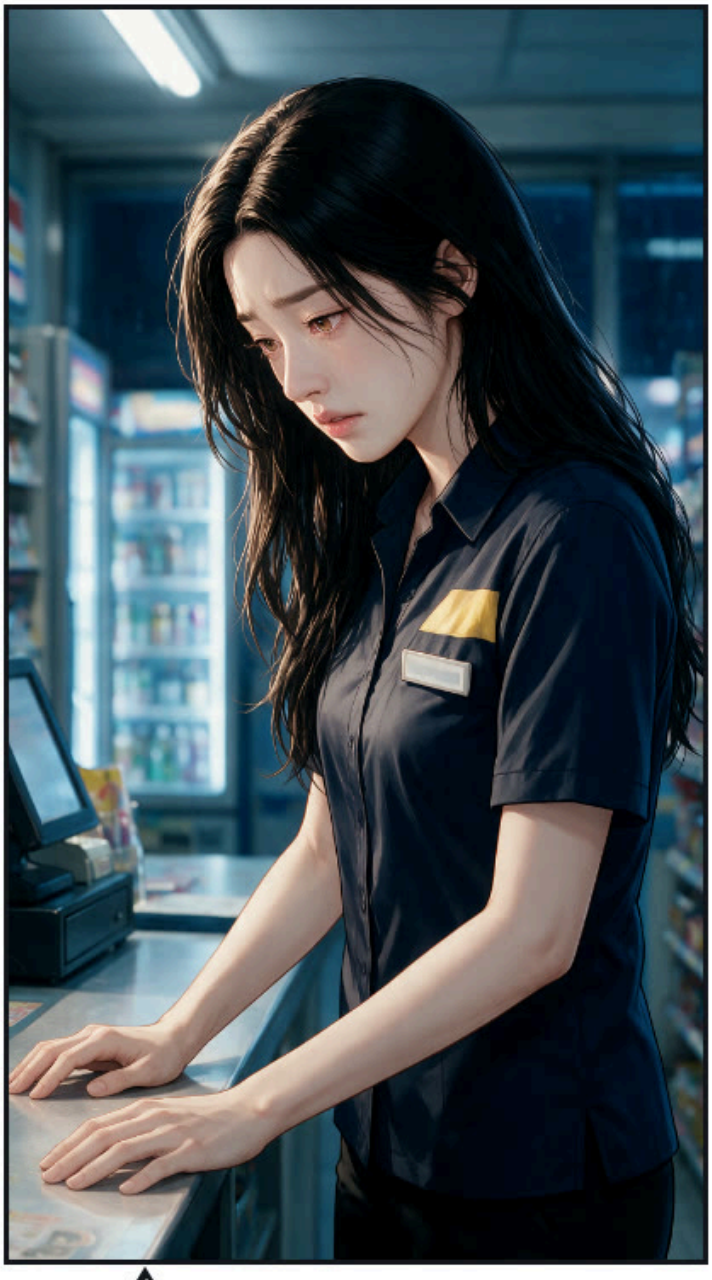



이번 주까지만
기다려 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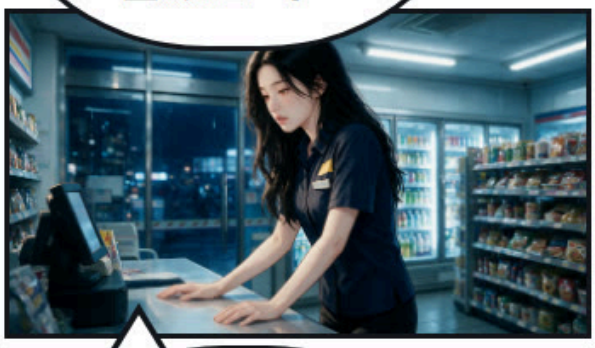


무슨 일이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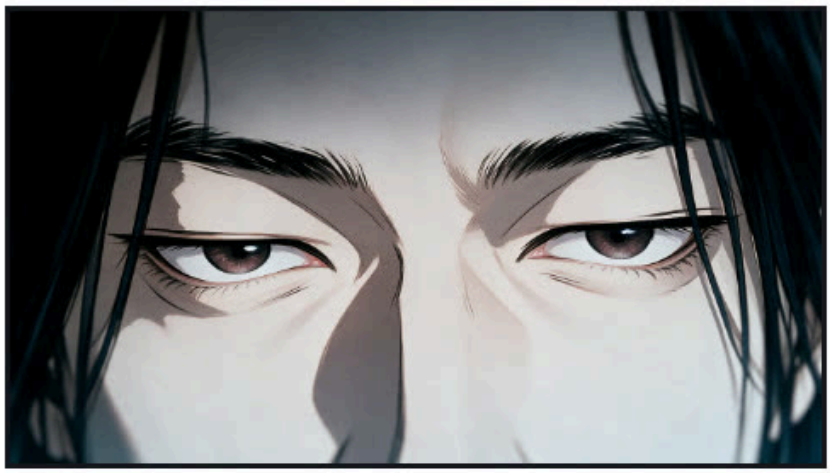
엄마 병원비

때문에 빌린
돈은 이미
갚았는데…



이자가…
계속
붙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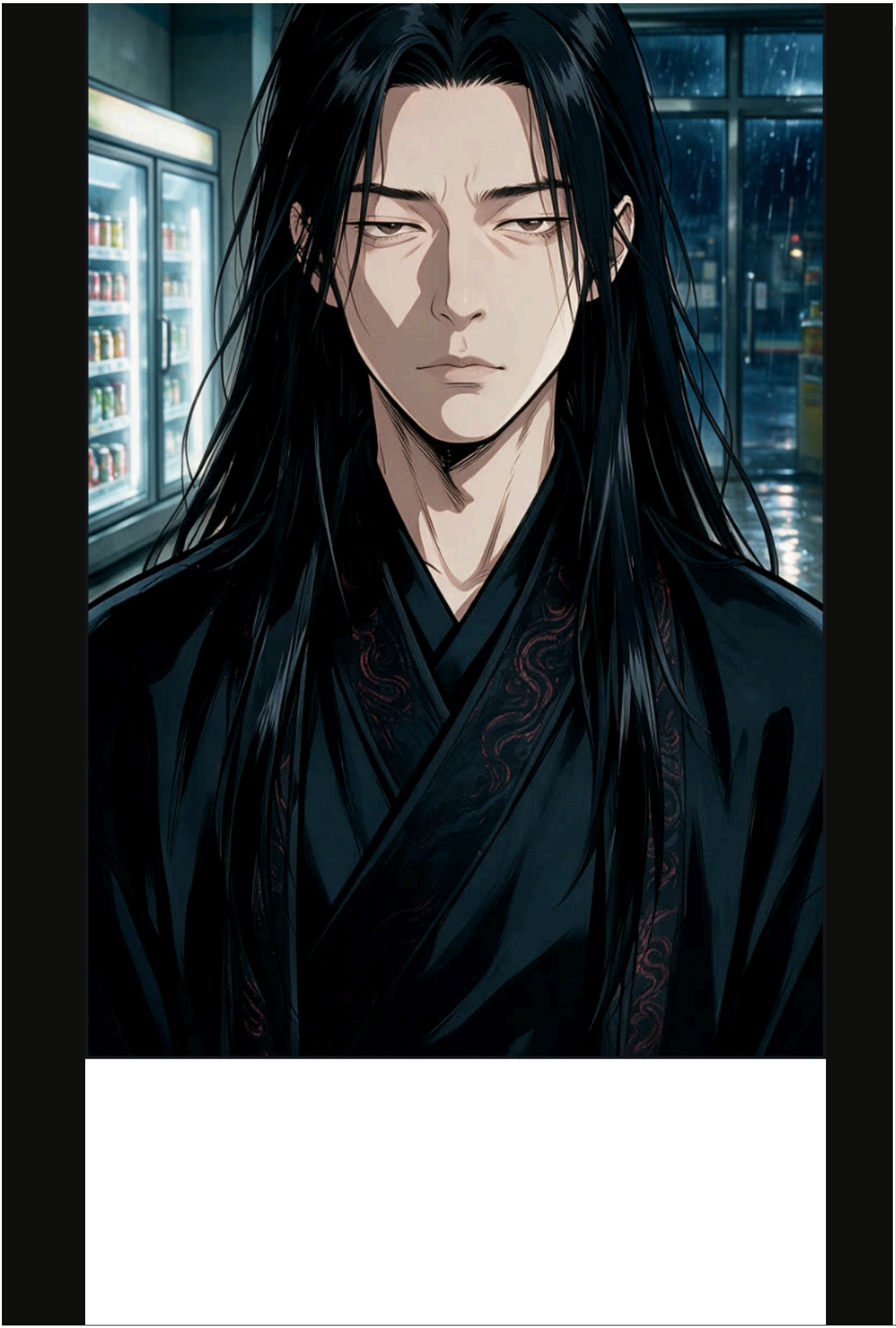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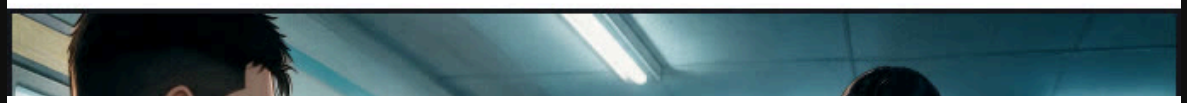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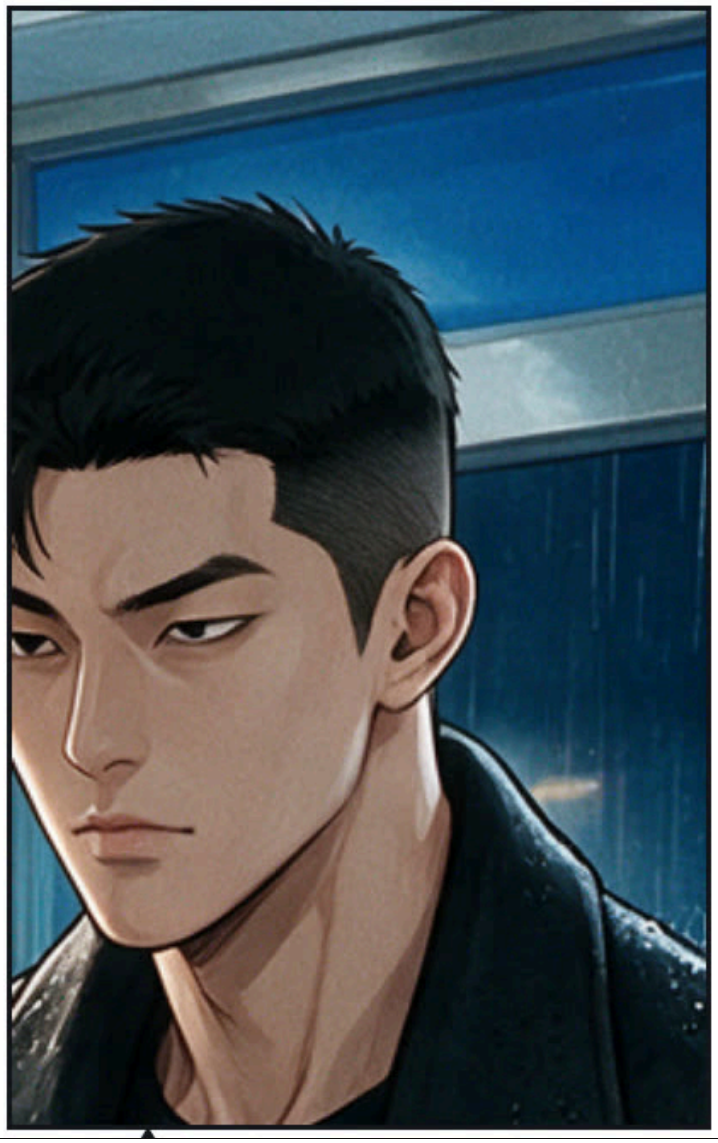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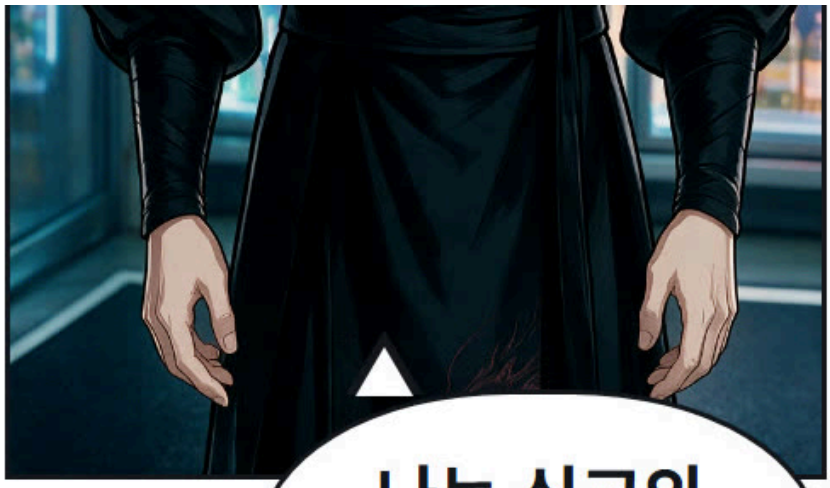


그 손을
놓아라.



넌 뭐야?





나는 신교의
소교주다.



신교? 무슨 사이비냐?



무복을 입고 있군! 믿는게 있나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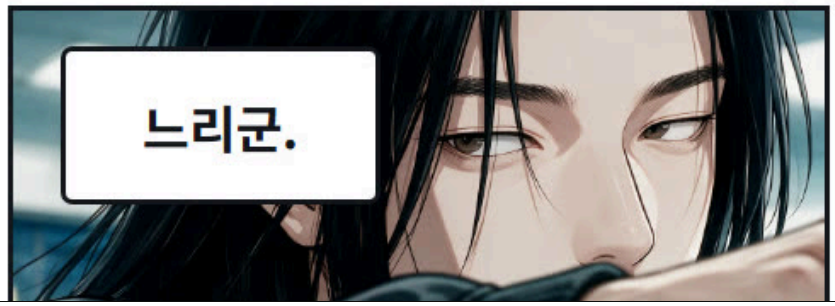
"교육 좀 시켜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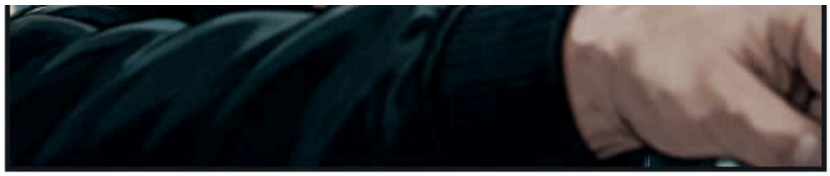


"싸움을 청하는 것이냐."


건방진


스윽


느리군.




턱






제법


탁


처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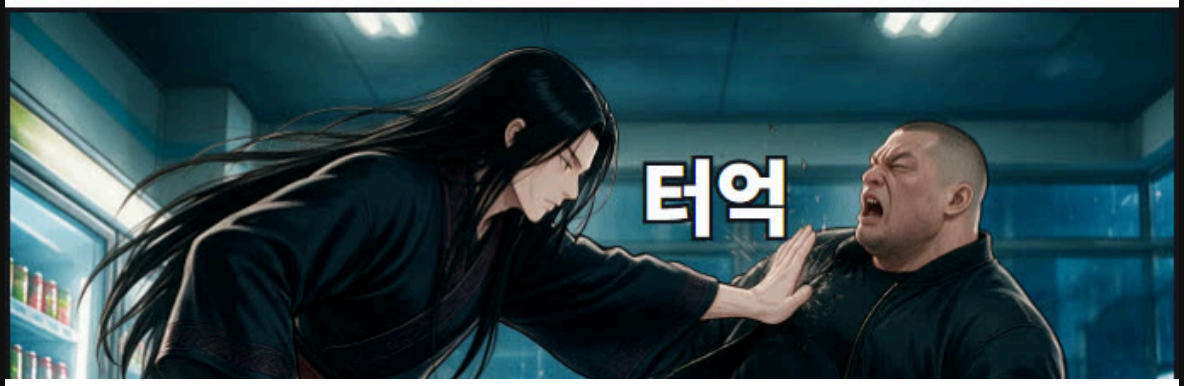

스윽


탁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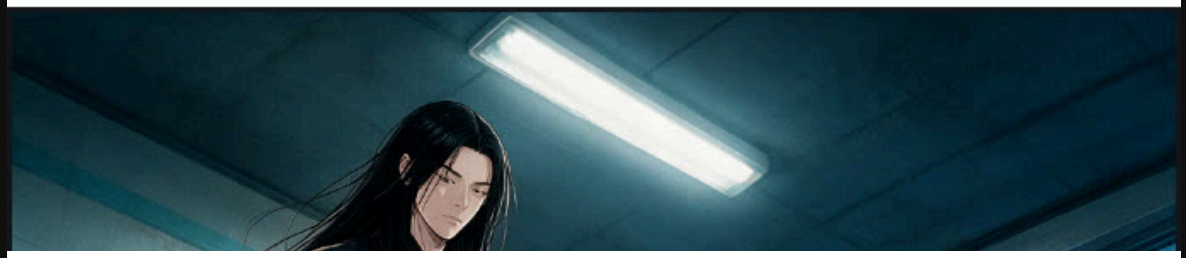

터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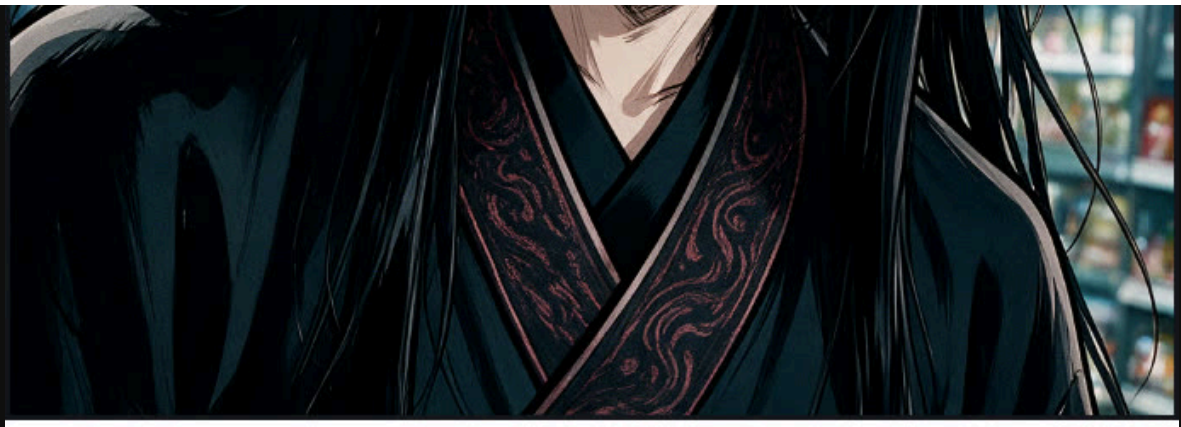





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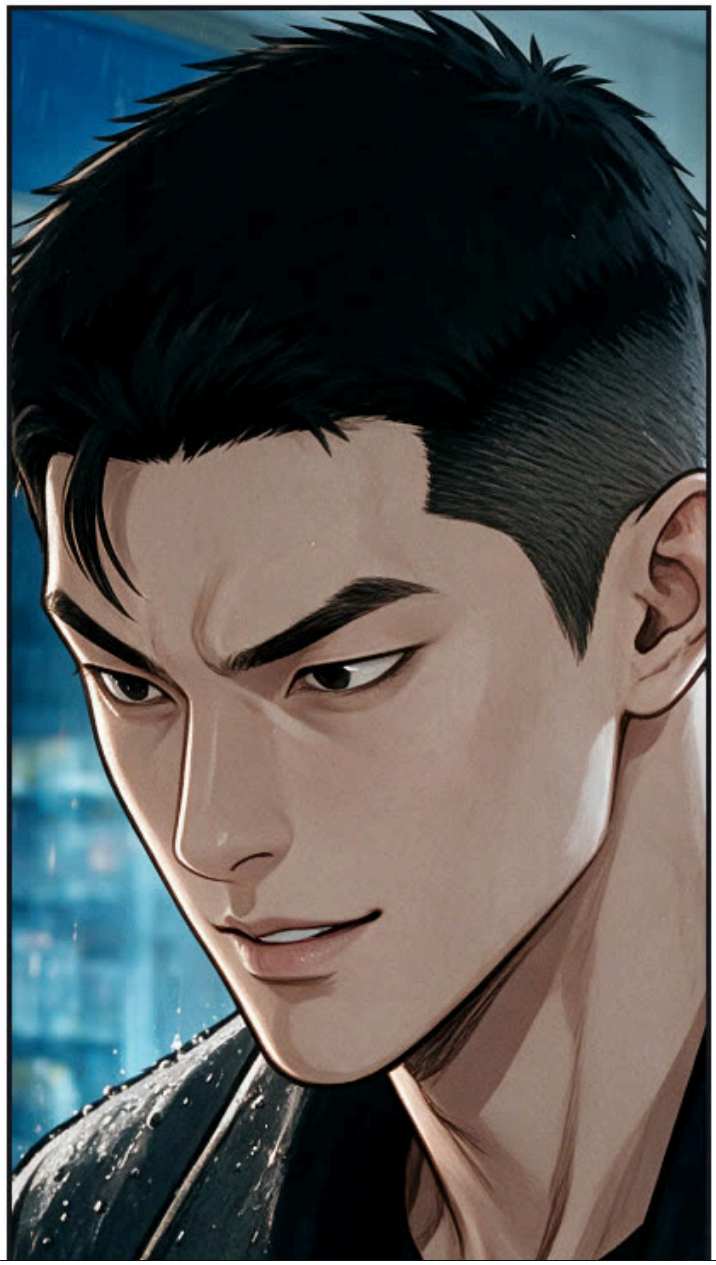



약하군.














안 돼요.





왜 막는
것이냐?



여긴 사람을
마음대로 때리면
경찰이 와요.



그들이 먼저
시작했다



그래도 내가 해결할 일이에요.
죽이면 끝나는 세상이
아니에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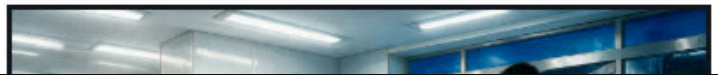




은인의
명이라면
따르지.



왜 내 말을
이렇게 잘
듣는 건데?




오늘은 그냥
간다만 다시
보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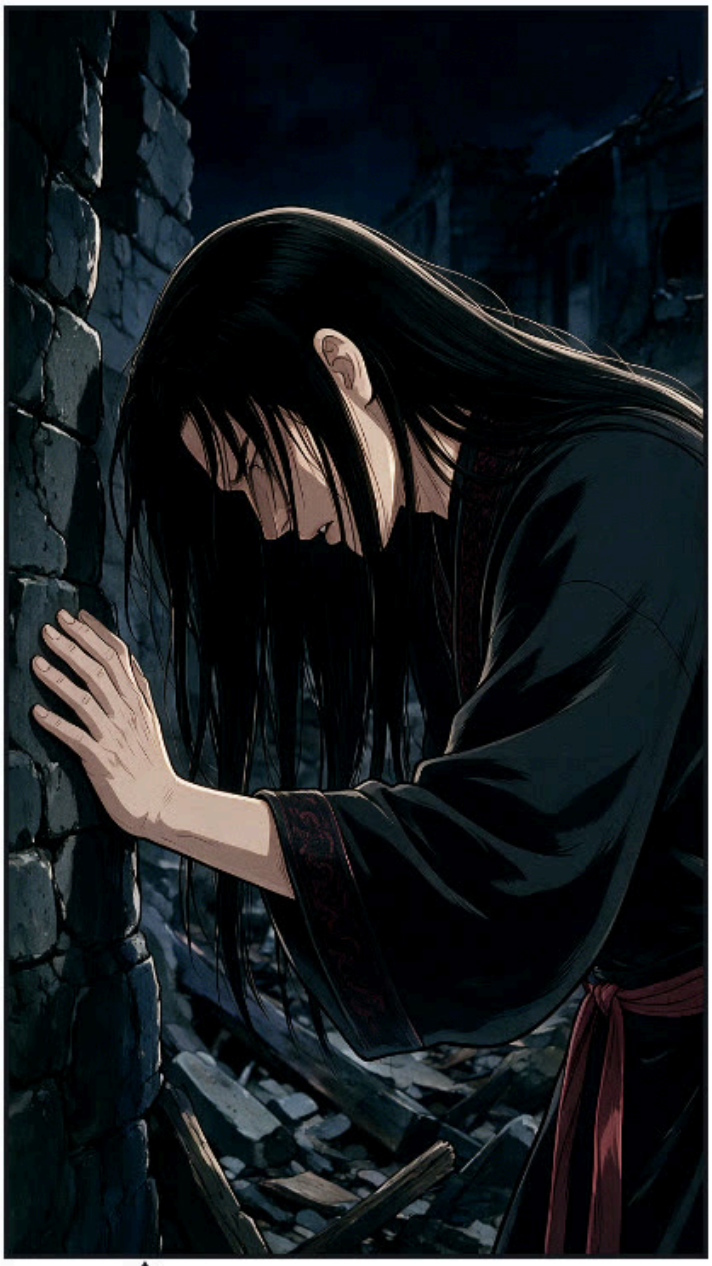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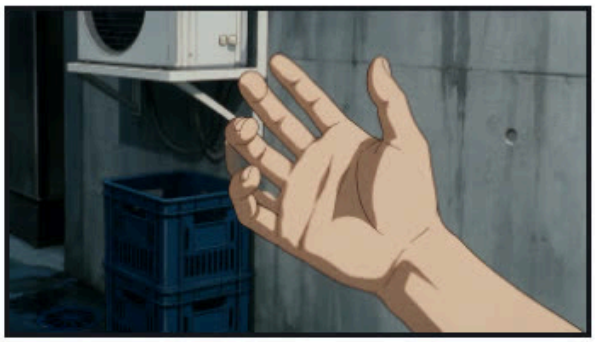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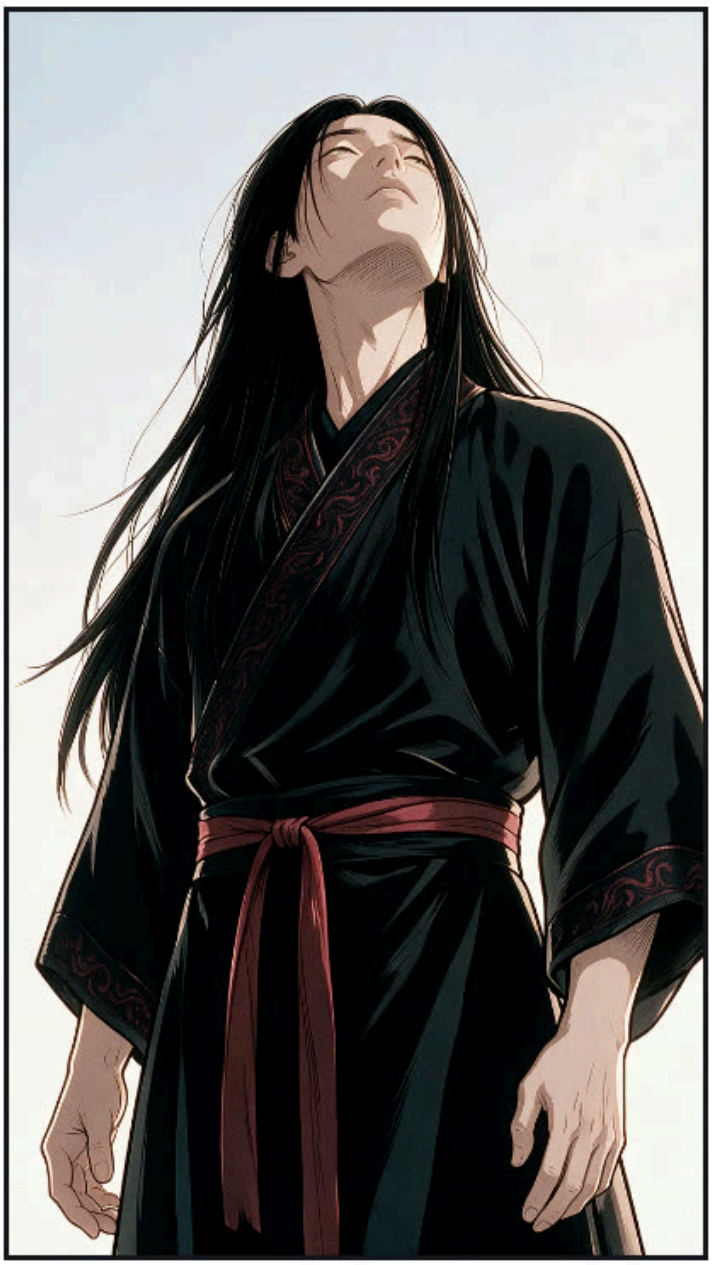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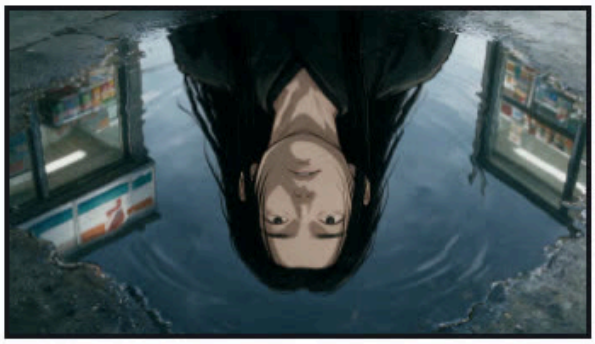
고작 저들을
상대하고
기맥이
비다니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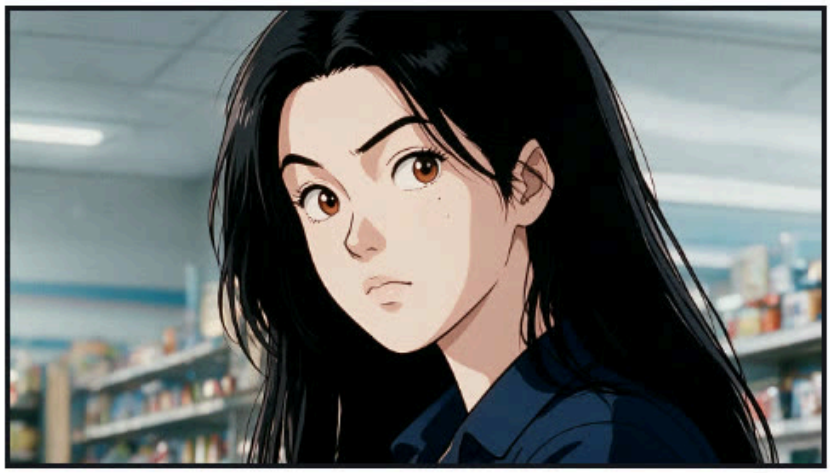


이 세계로 오면서
내공이 거의
소실됐다












갚겠다면서요. 그럼
일해요.


나를 점원으로
쓰겠다는
말인가.


소교주보다 시급이 먼저예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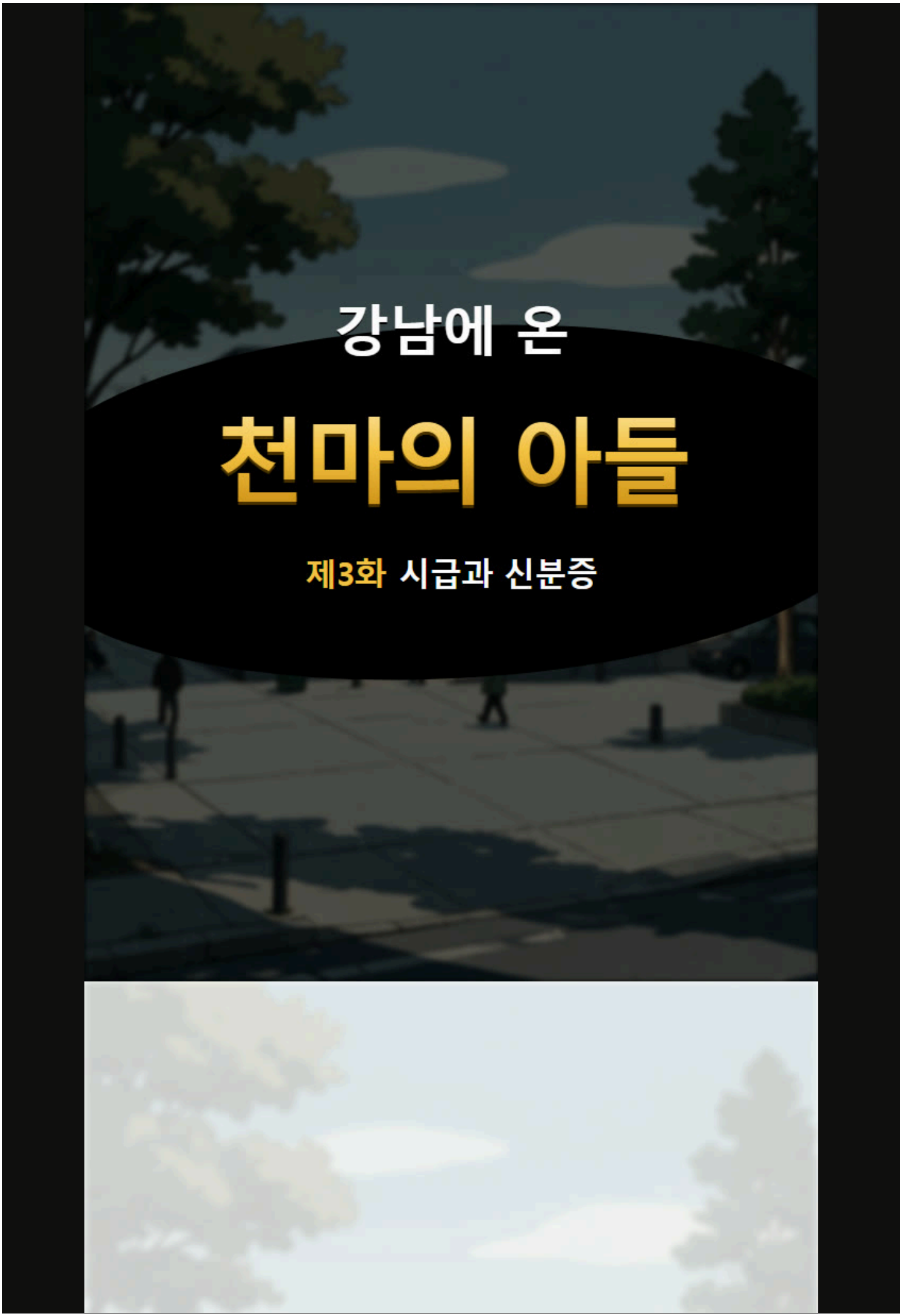


— 다음 화에 계속 —

강남에 온 천마의 아들

3화 · 시급과 신분증

이전화 다음화


강남에 온
천마의 아들
제3화 시급과 신분증


글 지안
그림 로드
기획 CLIIP WEBTOON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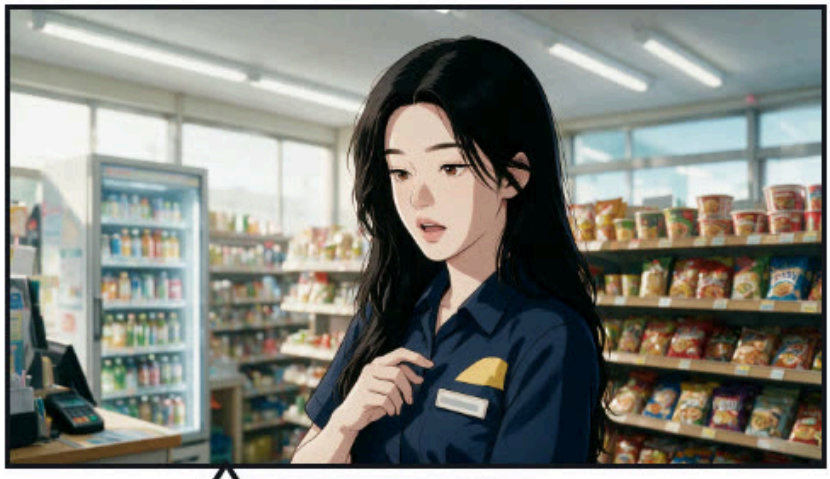



이름 여기다 쓰면

돼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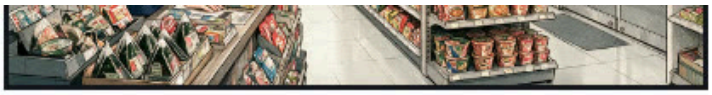


…본명, 써도
괜찮아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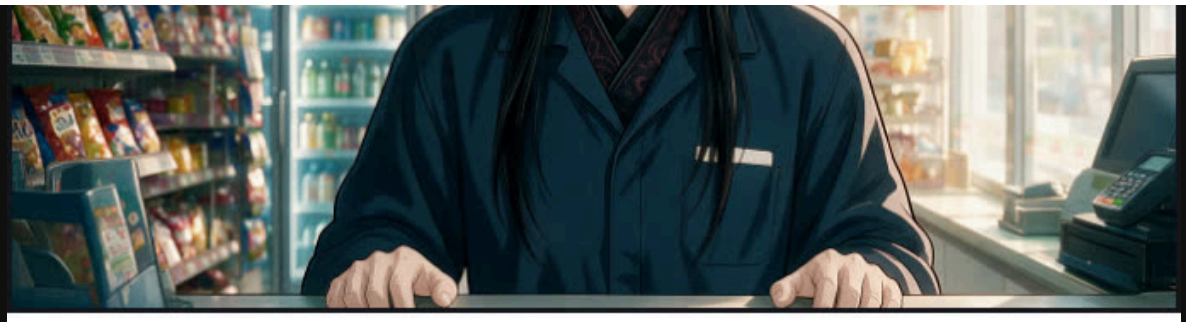
이름은 부모가 준 것이다. 숨기지 않는다.












그게 문제가 될
줄은 몰랐지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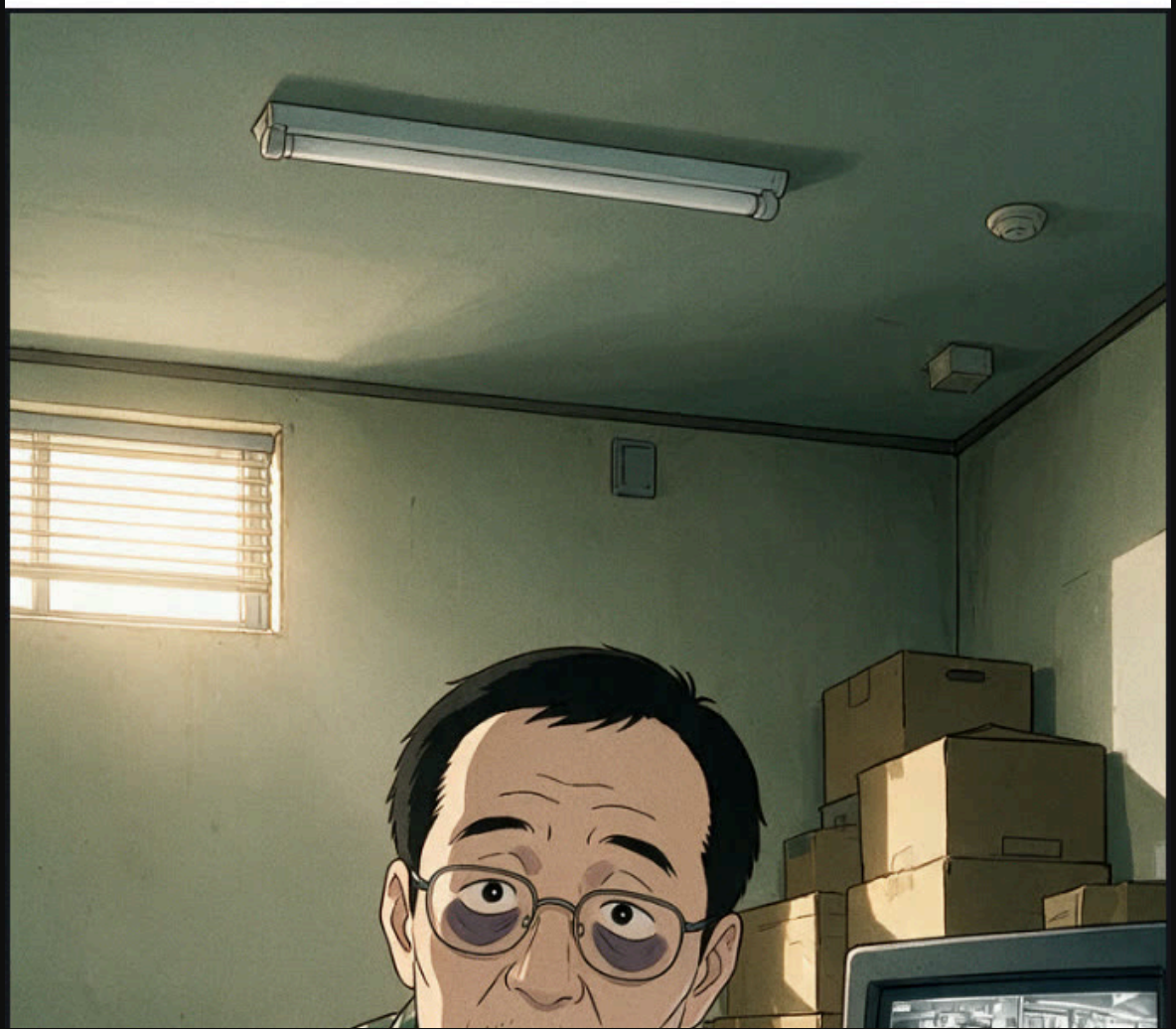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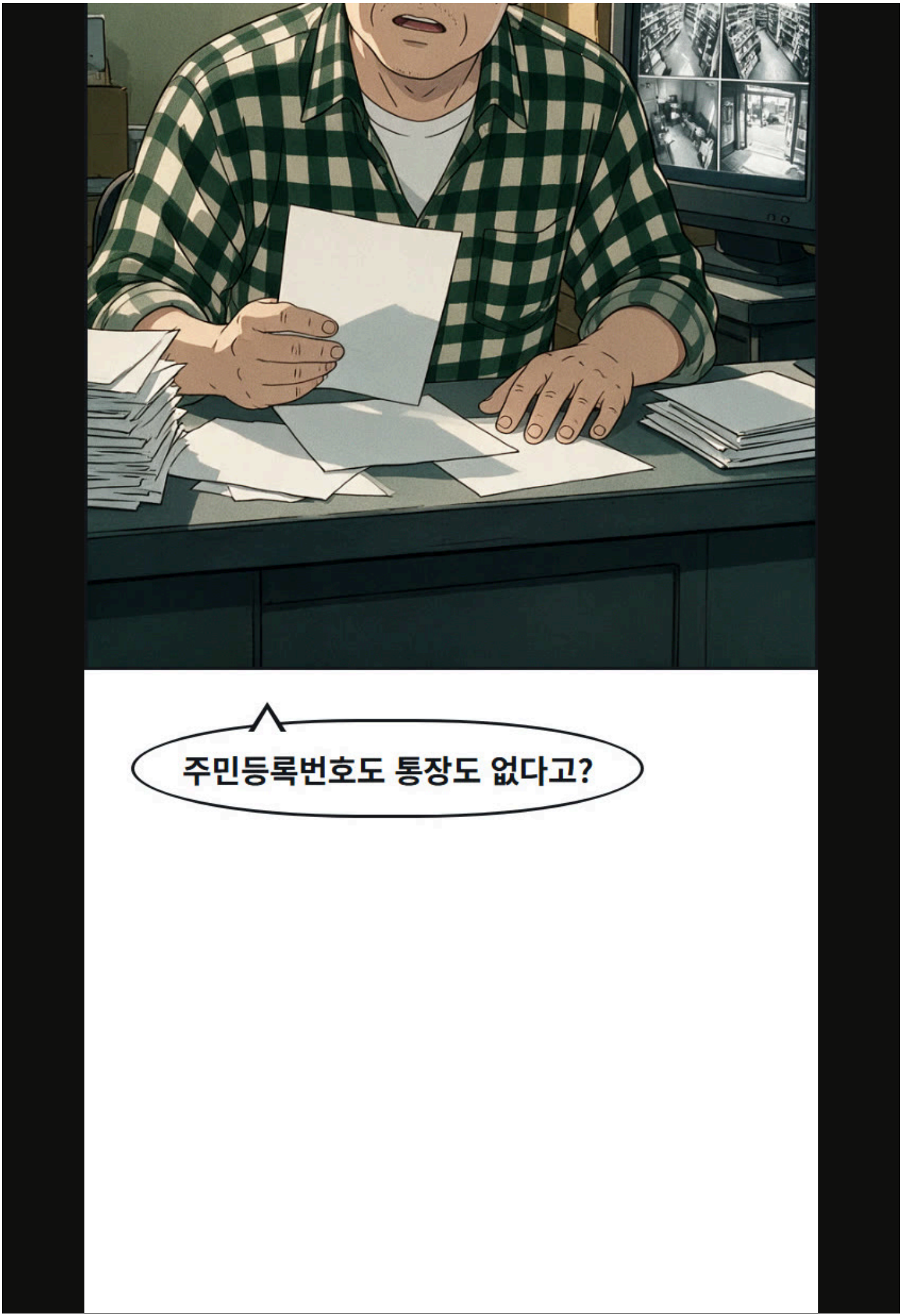
서류는 가져왔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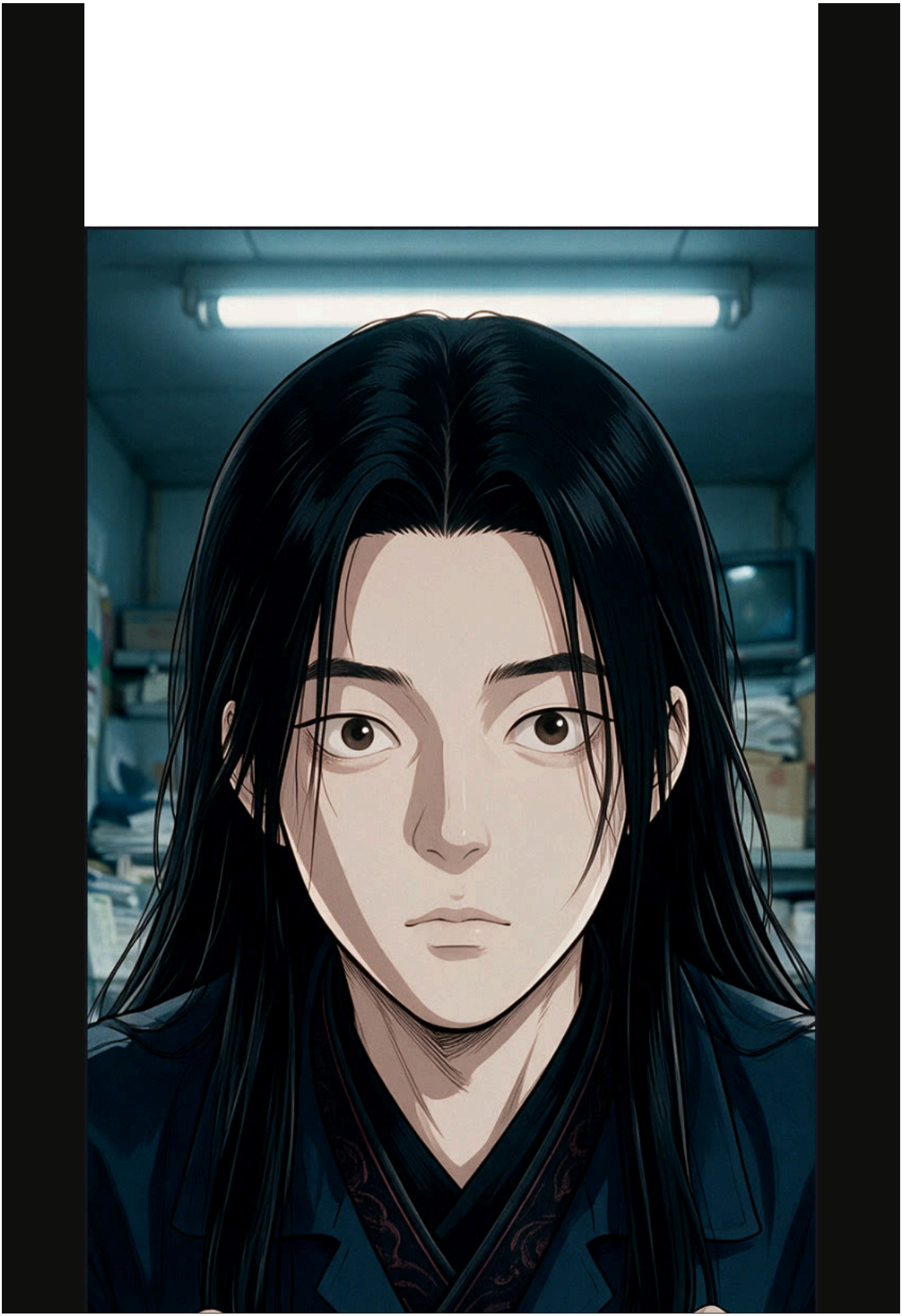









주민등록번호도 통장도 없다고?





주민은 맞으나, 등록된 적은 없다.




제가 정리해서 다시
가져올게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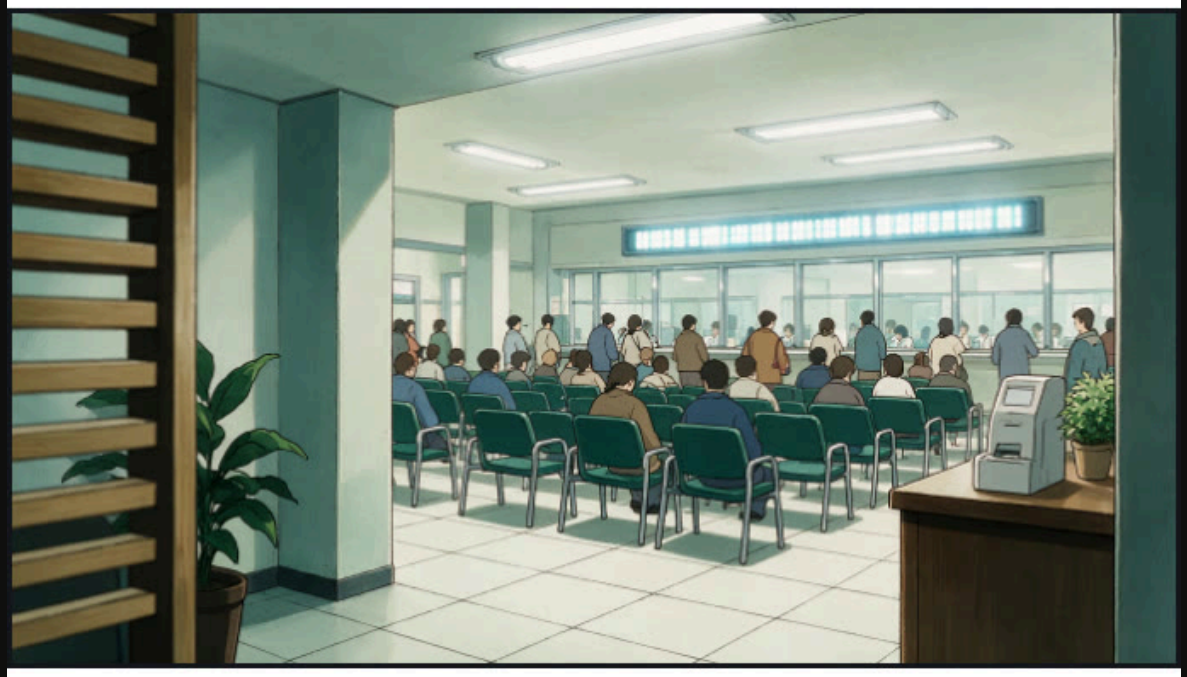


사람 하나 쓰는 데
이렇게 복잡한 건
처음이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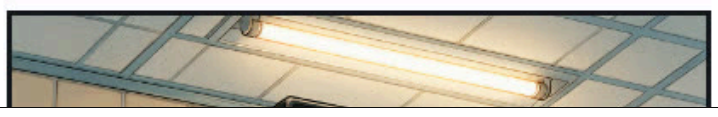





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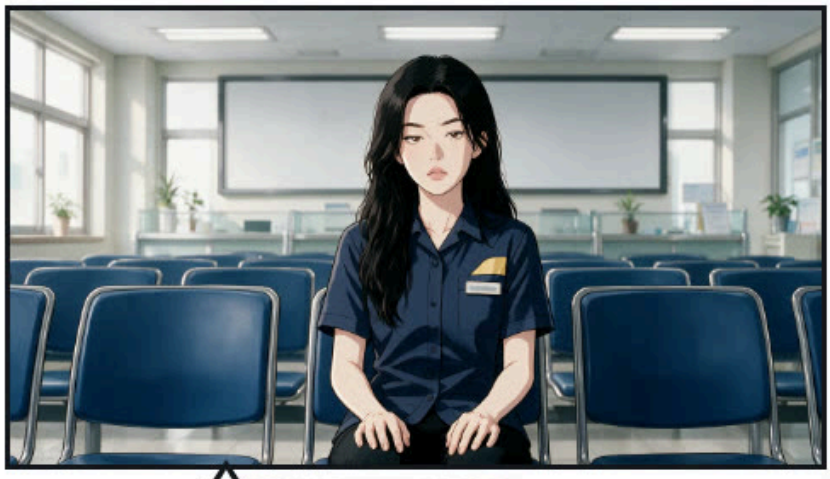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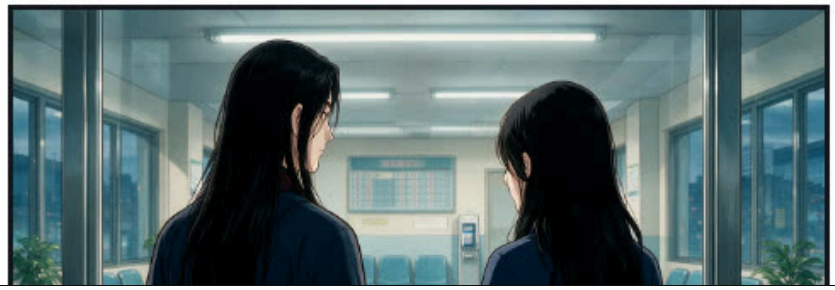



427




관청의 진법이 실로
치밀하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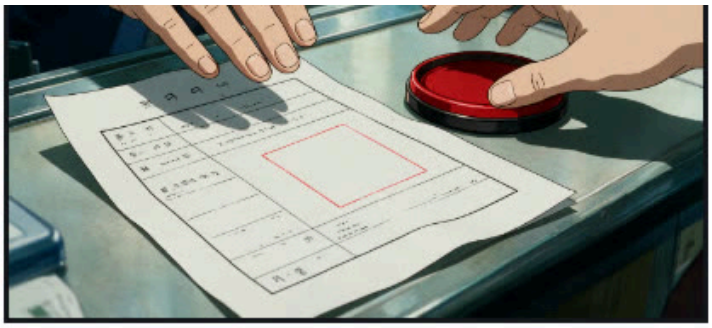

진법 아니고
행정이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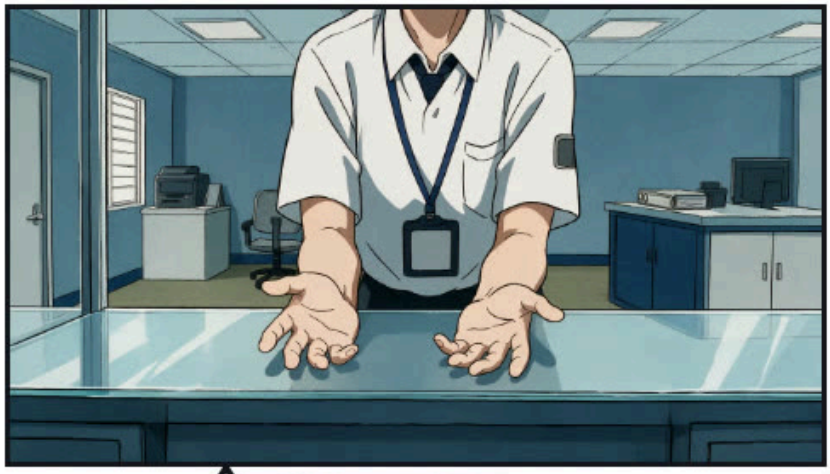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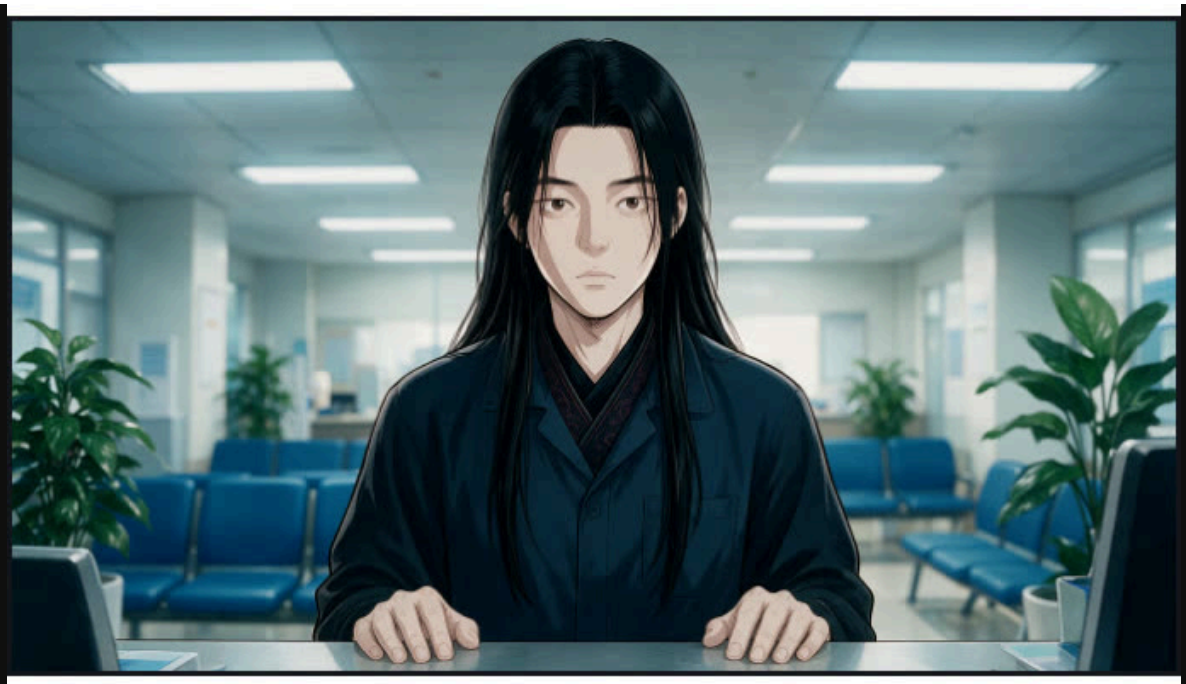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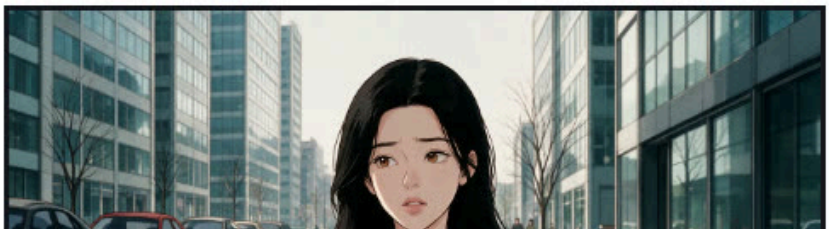






출생 기록이 없으면,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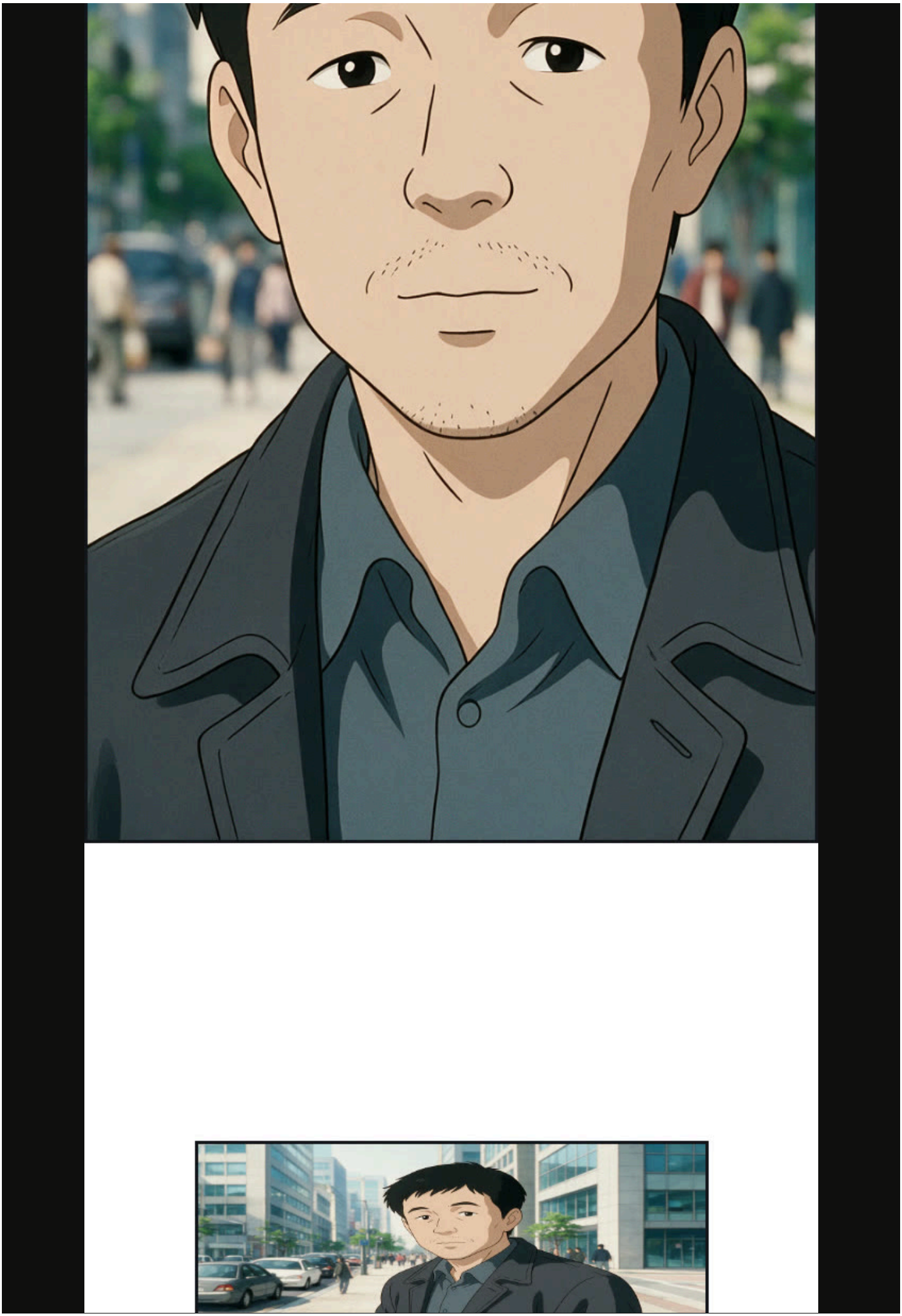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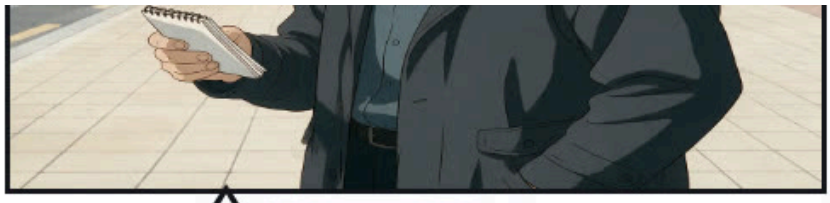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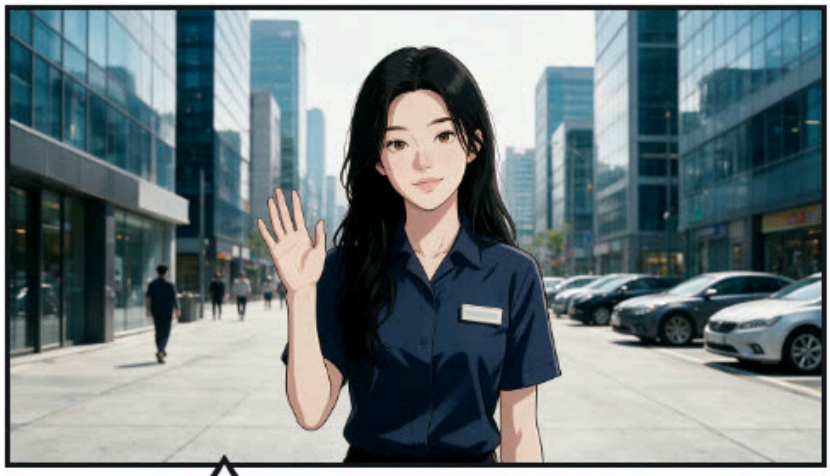




며칠 전 버스 사고
현장에 계셨습니까?






사람을 잘못 보셨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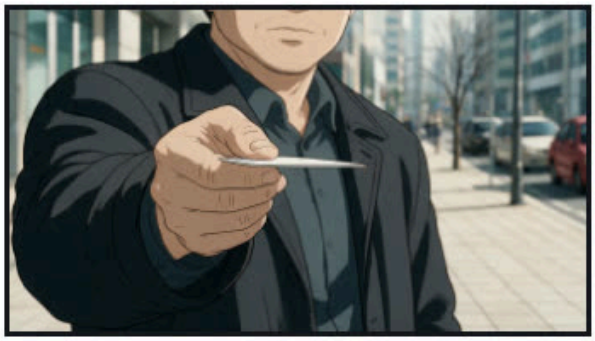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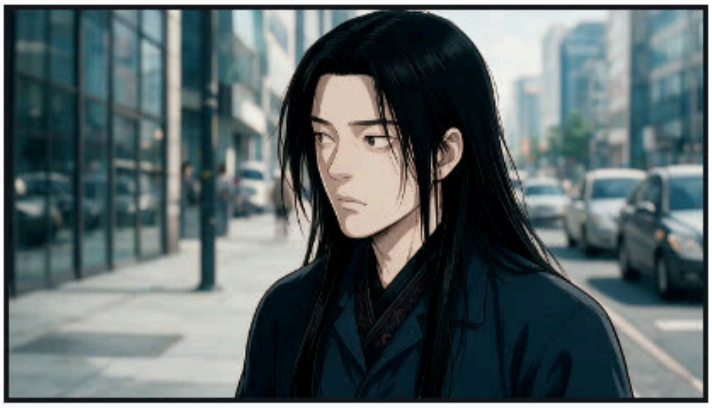





실례했습니다.
기억나면 연락

주십시오.










왜 나를 숨겼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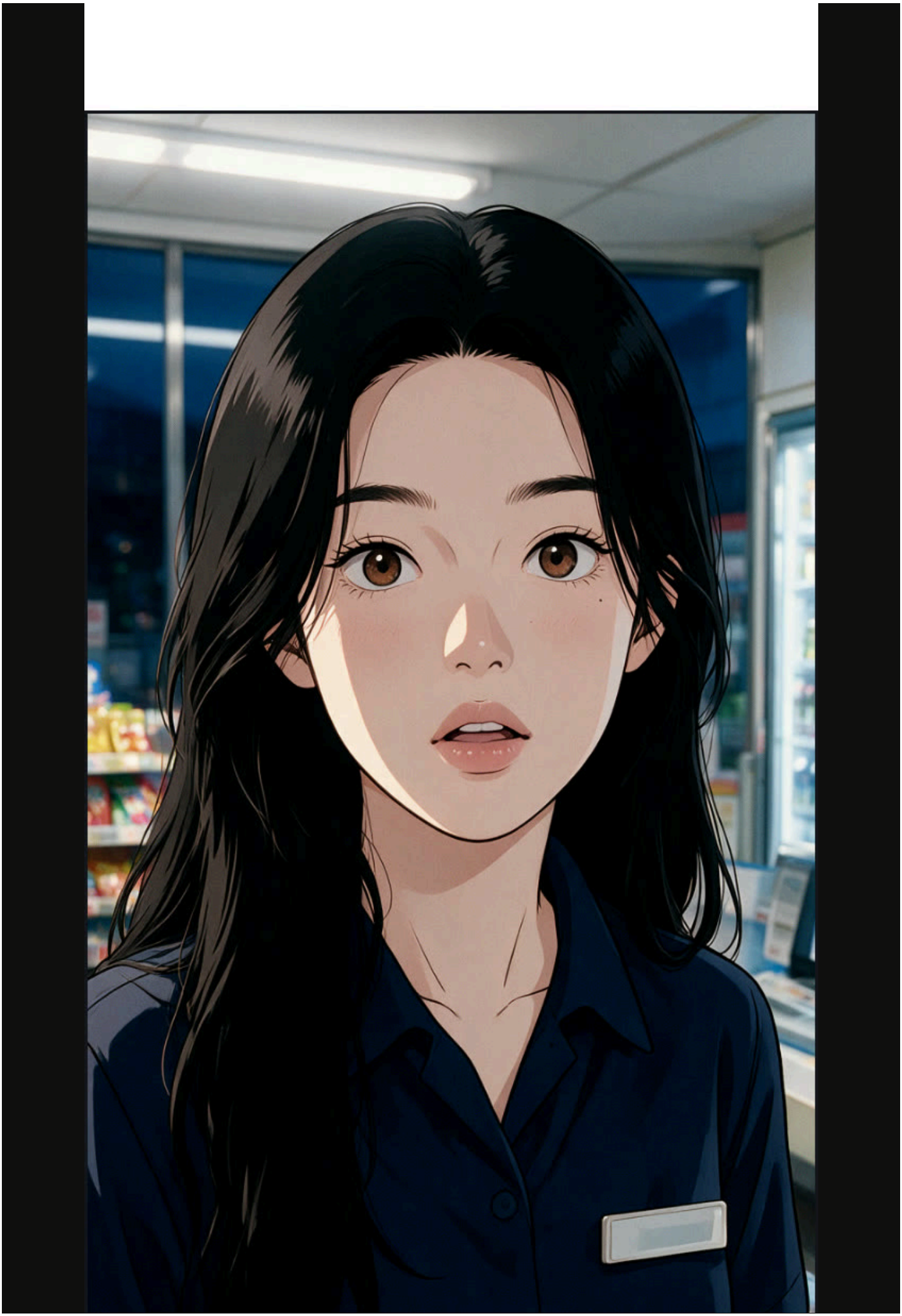




잡혀가면 설명도 못 할 것 같아서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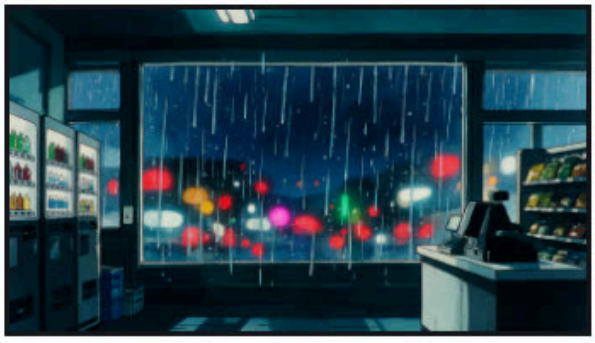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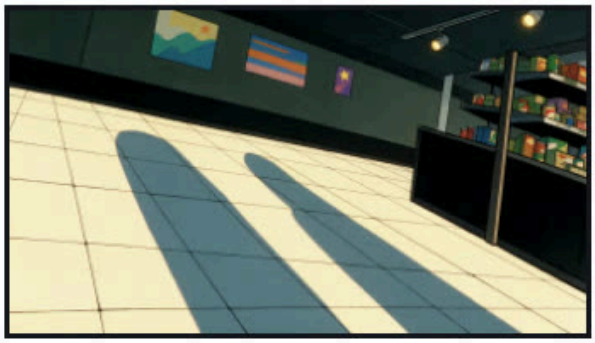
그리고… 버스 안 사람들, 아저씨가 살렸잖아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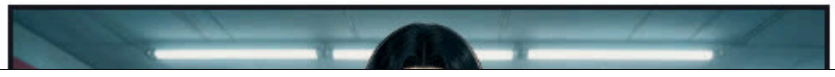

그러니까 시급은
제대로 받아 가요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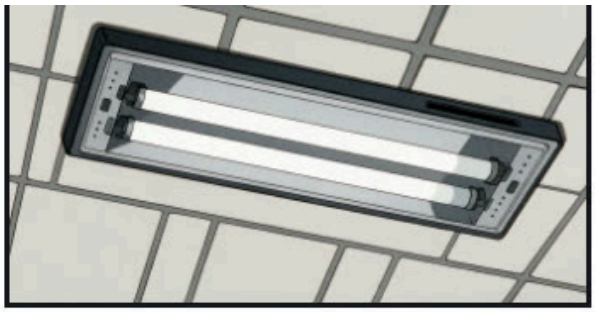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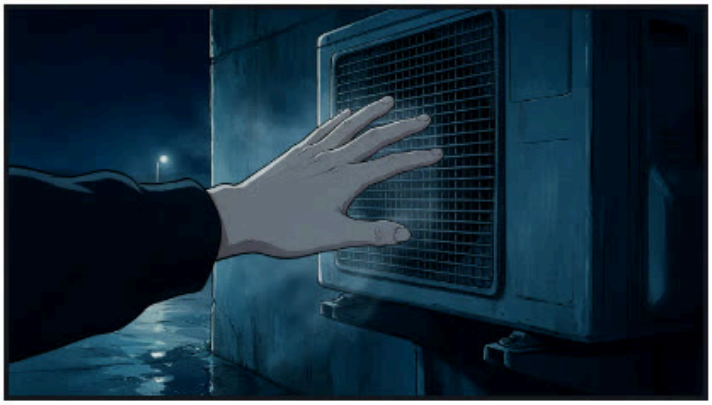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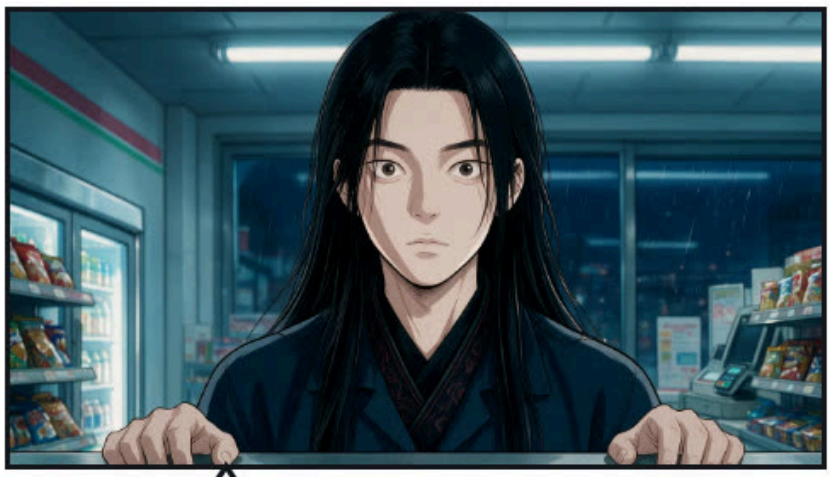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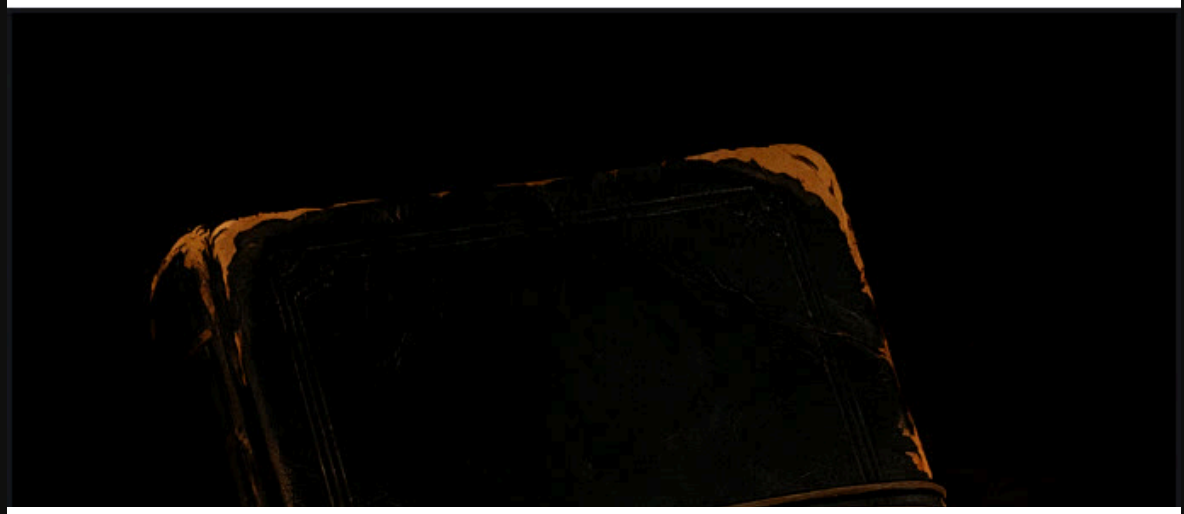



기가 없는 것이
아니다.


형태가 달라졌을 뿐.









— 다음 화 준비 중 —